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2014. 12

연구진

박해욱 (연구위원)

김대욱 (수석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 문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지역발전은 주로 하향식 방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나의 통일된 방안을 적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향식 방식의 지역발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커뮤니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산재하는 커뮤니티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산, 문화적 자산 등은 지속적으로 전승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주민들도 지방자치 발전의 주체로서 커뮤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커뮤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자원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한 이에 기초하여 지역이 더욱 발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이 승 중

요 약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내생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외생적인 발전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연구지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 제2장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개념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접근방법을 5개 접근방법(지역개발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경영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과 도시계획학적 접근)으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원 유형화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본 연구에 활용할 자원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지역(울진군의 읍면)을 중심으로 5개 자원 분야별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의 분포 정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경우 지역에 존재하는 기반시설과 인적 구성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 자원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와 무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지역의 커뮤니티 자산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간 발전의 차이,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커뮤니티 발전은 주로 하향식 방식의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식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커뮤니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 제1절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자원의 개념 6
 - 1. 커뮤니티의 개념 6
 - 2. 커뮤니티 자원의 개념 7
 - 제2절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 9
 - 1. 지역개발학적 접근: 자원 기반 커뮤니티 개발 이론 11
 - 2. 지리학적 접근: 자산 맵핑과 참여형 GIS 15
 - 3. 경영학적 접근: 커뮤니티 비즈니스 18
 - 4. 사회학적 접근: 커뮤니티 웰빙 23
 - 5. 도시계획학적 접근: 도시경쟁력 26
 - 제3절 이론적 접근의 종합 30

- 제3장 연구설계 37
 - 제1절 커뮤니티 자원 분석의 틀 37
 - 제2절 기존 연구의 자원 유형화 및 측정 검토 41
 - 1. 기존연구의 커뮤니티 자원 유형화 41

2. 기존연구의 커뮤니티 자원 측정방법 검토	44
제3절 본 연구의 커뮤니티 자원 유형화 및 측정	46
1. 물적 자원	49
2. 인적 자원	50
3. 사회적 자원	51
4. 경제적 자원	52
5. 정치적 자원	52
제4장 커뮤니티 자원의 실증분석: 울진군의 읍면을 중심으로	54
제1절 울진군의 일반적 자원현황	54
1. 지리적 현황	54
2. 인구구성 현황	56
3. 사회·경제적 현황	59
제2절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실증분석	63
1. 조사의 개관	63
2. 커뮤니티의 자원 특성 비교	65
3. 커뮤니티 자원의 읍면별 차이 분석	78
제3절 지역별 자원유형의 맵핑	84
1. 물적 자원	84
2. 인적 자원	85
3. 사회적 자원	85
4. 경제적 자원	86
5. 정치적 자원	87
6. 지역별 자원의 종합 비교	88

제5장 결 론	9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기대효과	90
1. 연구결과의 요약	90
2. 연구의 기대효과	91
제2절 정책적 제언	92
1.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 모색	92
2. 지역단위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93
3. 읍면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93
4. 읍면 단위에서의 통계데이터 생성 및 활용 강화	94
5.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자원맵핑 시스템 구축	95
【참고문헌】	96
Abstract	101
【부록 1】 울진군 읍면의 자원 발굴에 관한 설문조사	103

표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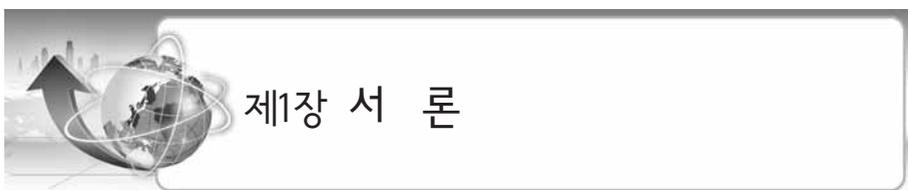
〈표 2-1〉 커뮤니티의 개념정의	6
〈표 2-2〉 필요기반 접근과 자원기반 접근의 비교	12
〈표 2-3〉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방법별 지방정부의 역할	34
〈표 3-1〉 지역자원의 정의 및 구성요소	41
〈표 3-2〉 ABCD 연구소의 지역자원 유형구분	42
〈표 3-3〉 DFID의 자원 오각형의 내용	43
〈표 3-4〉 향토자원의 구분	43
〈표 3-5〉 DFID의 커뮤니티 자원 측정 방법	46
〈표 4-1〉 응답자 특성	64
〈표 4-2〉 지역별 물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66
〈표 4-3〉 지역별 인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69
〈표 4-4〉 지역별 사회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71
〈표 4-5〉 지역별 경제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73
〈표 4-6〉 지역별 정치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75
〈표 4-7〉 지역별 커뮤니티 자산 분석의 종합	77
〈표 4-8〉 읍면간 물적 자원 차이 분석	78
〈표 4-9〉 읍면간 인적 자원 차이 분석	79
〈표 4-10〉 읍면간 사회적 자원 차이 분석	80
〈표 4-11〉 읍면간 경제적 자원 차이 분석	81
〈표 4-12〉 읍면간 정치적 자원 차이 분석	82
〈표 4-13〉 읍면간 커뮤니티 자원 차이 분석	83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1-2〉 연구의 방법	5
〈그림 2-1〉 커뮤니티 자원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들	10
〈그림 2-2〉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이론적 시각 비교	31
〈그림 3-1〉 분석의 틀	38
〈그림 3-2〉 지역자산지도의 예시: 감천 문화마을 만들기	44
〈그림 3-3〉 PPGIS를 활용한 커뮤니티 자산 예시	45
〈그림 4-1〉 울진군의 지리적 위치	55
〈그림 4-2〉 울진군의 읍면별 면적 비교	55
〈그림 4-3〉 울진군 읍면별 주민등록 인구(2013년)	56
〈그림 4-4〉 울진군 읍면별 주민등록 인구변화(2005-2013년)	57
〈그림 4-5〉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비율(2013년 기준)	58
〈그림 4-6〉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2007-2013년)	59
〈그림 4-7〉 울진군의 사업체 및 개인사업체 수(2008-2012년)	60
〈그림 4-8〉 울진군의 분야별 사업체 수	61
〈그림 4-9〉 사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2008-2012년)	62
〈그림 4-10〉 울진군 분야별 사업체 종사자 수(2012년)	63
〈그림 4-11〉 지역별 물적 자원 비교	67
〈그림 4-12〉 지역별 인적 자원 비교	70
〈그림 4-13〉 지역별 사회적 자원 비교	72
〈그림 4-14〉 지역별 경제적 자원 분석결과	74
〈그림 4-15〉 지역별 정치적 자원의 비교	76
〈그림 4-16〉 지역별 물적 자원 다이어그램	84
〈그림 4-17〉 지역별 인적 자원 다이어그램	85

〈그림 4-18〉 지역별 사회적 자원 다이어그램	86
〈그림 4-19〉 지역별 경제적 자원 다이어그램	87
〈그림 4-20〉 지역별 정치적 자원 다이어그램	88
〈그림 4-21〉 지역 커뮤니티 자원 비교분석	89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커뮤니티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학문적 논의에서도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활성화되고 있다. 커뮤니티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대산업사회의 비인간화, 인간소외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이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집합체로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잠재력이 강조되고 있다.

커뮤니티는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로 파악된다. 주민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이웃들과 상호작용하고, 많은 시간을 커뮤니티 내에서 활동하며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소속된 커뮤니티라는 환경은 이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주민의 삶의 질이 커뮤니티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보는 관점에서 최근에는 커뮤니티 웰빙 등의 개념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는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관심도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관심은 초창기에는 전통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는 수요평가 접근방법이었다. 최근에는 자원접근법 등의 다양한 접근법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개발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커뮤니티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행정학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시초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커뮤니티가 가진 자원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발전과 활성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 발전의 내생적 접근방법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을 개발시키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 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내생적인 발전이 가능해야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개별 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개발 측면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실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논의는 학문적, 이론적 차원에서보다는 실무적, 실용적 차원에서 많이 접근되어 왔고, 다양한 학문 분야(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개발학, 지리학 등)에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Green & Haines, 2012).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것도 커뮤니티 자원 및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이론 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론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커뮤니티의 상태나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모형들이 커뮤니티 자원을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자원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활용모형이라고 할지라도 이론적 틀 내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제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시각으로 커뮤니티 자원을 바라보고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각 접근 모형들이 지방정부입장에서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는지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 커뮤니티의 상태를 평가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모형들이 주로 지역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실용적, 실무적 차원에서 발달되어 왔고 학술적인 의미

에서 명확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원의 이론적 개념적 위치를 평가해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이론 모형들과 연관하여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커뮤니티 자원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을 탐색적으로 실시하며, 이러한 실증분석은 상기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서의 함의를 바탕으로 한 자료를 토대로 수행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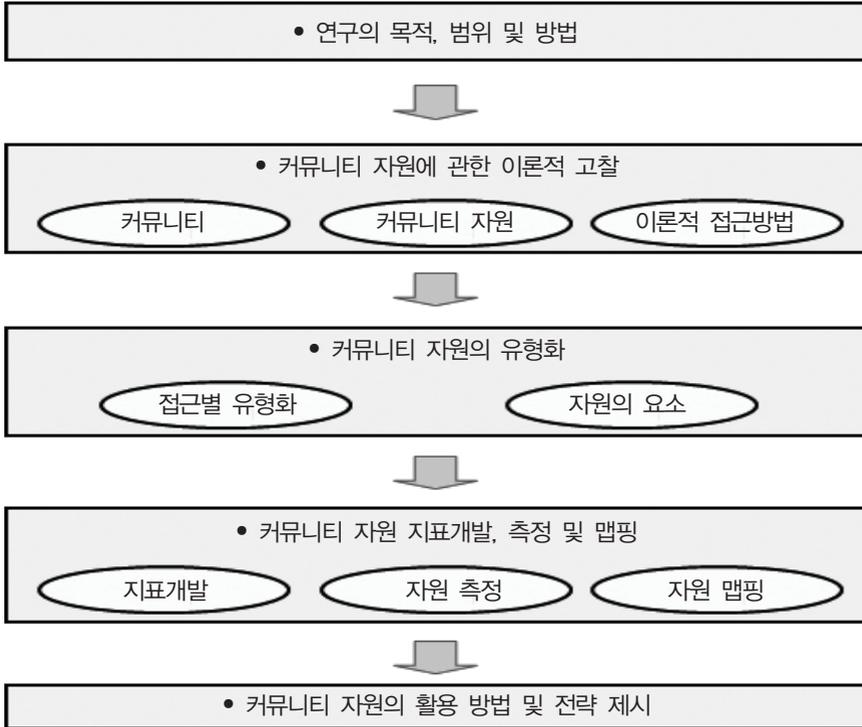
연구의 범위는 내용 및 대상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연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개념, 특성, 접근방법을 포함하여 이론적인 논의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기로 한다. 또한 커뮤니티 자원을 유형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그 수준을 측정한 후 자원을 맵핑하기로 한다.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분석은 사례로 선정된 하나의 군지역에 속하는 읍·면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기로 한다. 이는 읍·면이 커뮤니티의 전통적인 개념의 범위에 가깝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되어 있어 자원을 활용한 내생적 지역발전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 연구기관, 연구자 등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자원을 광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가 아니면 협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연구내용 및 논리적 흐름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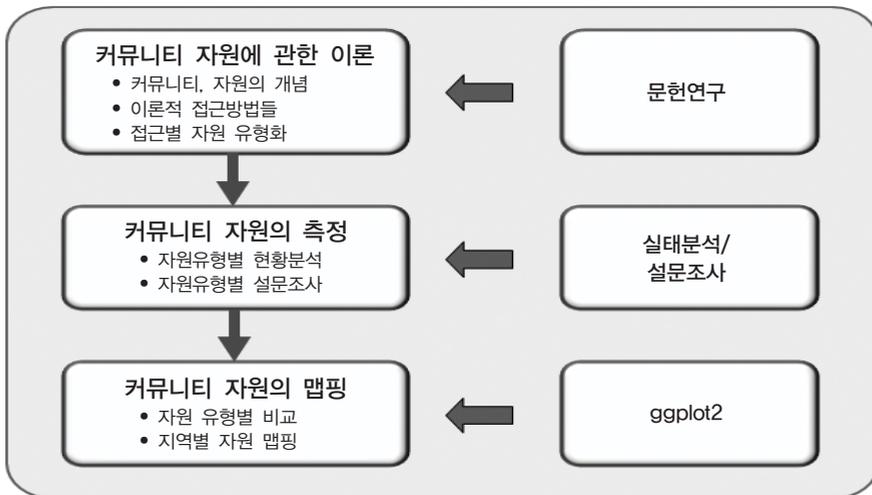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기로 한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개념, 이론적 접근방법, 연구경향, 선행연구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매우 일천하다는 점에서 외국에서의 연구보고서, 논문 등의 문헌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관점, 범위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둘째,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연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수준에서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 비교·분석하도록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분석은 통계연보에 제시된 객관적인 데이터의 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설문조사는 물적 자원, 인적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정치적 자원 등의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5-6개 문항을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별 자원분석을 근거로 다양한 자원을 맵핑하여 자원의 시각화(visualization)를 도모하며, 이러한 맵핑을 위해서는 R 프로그램의 ggplot2 패키지를 활용하기로 한다.

〈그림 1-2〉 연구의 방법





제2장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자원의 개념

1. 커뮤니티의 개념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커뮤니티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개념화되어 왔다. 단순히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관계적인 속성을 강조하여 소속감을 중심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cf. McMillan & Chavis, 1986). 예를 들어, PronShansky et al.(1983)는 커뮤니티를 ‘물리적인 실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심리 및 문화적 실체’로, DeFilippis and Saegaet(2008)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 장소, 제도 등의 모든 사회적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2-1〉 커뮤니티의 개념정의

연구	개념
PronShansky et al.(1983)	물리적인 실체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심리 및 문화적 실체
DeFilippis and Saegaet(2008)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 장소, 제도 등의 모든 사회적 상호관계를 포함하는 개념
MacQueen et al(2001)	사회적 유대, 공동의 관점을 공유, 지리적 또는 상황적으로 협력활동에 참여를 통하여 연계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일련의 사람들
서재호 외(2012)	일정한 지역의 범위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공간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

자료: 서재호 외(2012), 최현선 외(2012)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구성요소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는

데, Hillery(1955)와 MacQueen et al(2001)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Hillery(1955)의 연구는 커뮤니티에 관한 초기 연구들의 공통적인 구성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커뮤니티를 연구주제로 한 95편의 논문들을 메타분석하여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통적 연계’를 공통적 요소로 발견하였다.

이후 MacQueen et al(2001)은 공공보건(public health) 분야에서 커뮤니티의 의미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는데, 질적연구방법론을 통한 인터뷰 자료를 클러스터 분석한 결과 사회적 유대(social tie), 공통된 시각(share common perspectives), 지리적 공간에서의 공동행동 참여(engage in joint action in geographical locations)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강조되는 공통적인 요소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커뮤니티를 ‘사회적 유대, 공동의 관점 공유, 지리적 또는 상황적으로 협력활동에 참여를 통하여 연계된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일련의 사람들’로 정의한 바 있다(서재호 외, 2012: 41).

이렇듯 커뮤니티에 대한 다양한 개념화에 있어 공통적인 요소들은 지리적인 공간과 그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공유되는 인식 또는 소속감을 더 강조하는 접근들도 있다. 장소적인 것은 지리적 공간을 말하고 비장소적인 특징으로는 안정성, 소속감, 공동체적 정체성에 대한 감정이 있다(Murphy & Kuhn, 2006: 2-7).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커뮤니티 자원의 개념

커뮤니티 자원을 정치하게 개념화하고 있는 연구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관련 연구에서 김종수 외(2012)는 커뮤니티 자원을 주어진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사람, 문화, 공동체기관, 비공식적 조직 등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자원 등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한편 IDEA(2010)

는 커뮤니티 자원을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기술, 역량, 지식과 열정 및 흥미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 연결망과 공간 기반의 물리적, 경제적 자원들도 커뮤니티 자원에 포함된다고 간주하고 있다(김종수 외, 2012: 76-77).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주요 연구인 Green & Haines(2012)는 커뮤니티 자원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커뮤니티 구성원의 역량과 능력, 둘째, 학교, 병원, 교회, 도서관, 휴양시설, 사교클럽 등, 물리적 구조 또는 장소, 셋째, 지역경제에 일자리와 지원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넷째, 시민들의 협회, 다섯째, 지역의 민간, 공공, 그리고 비영리조직 등이다.

한편, 자원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원료로서의 광물, 산림, 수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인간 생활 및 경제 생산에 이용되는 노동력이나 기술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나타난다.

이러한 개념정의들과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볼 때, 커뮤니티 자원은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자원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것들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을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 개념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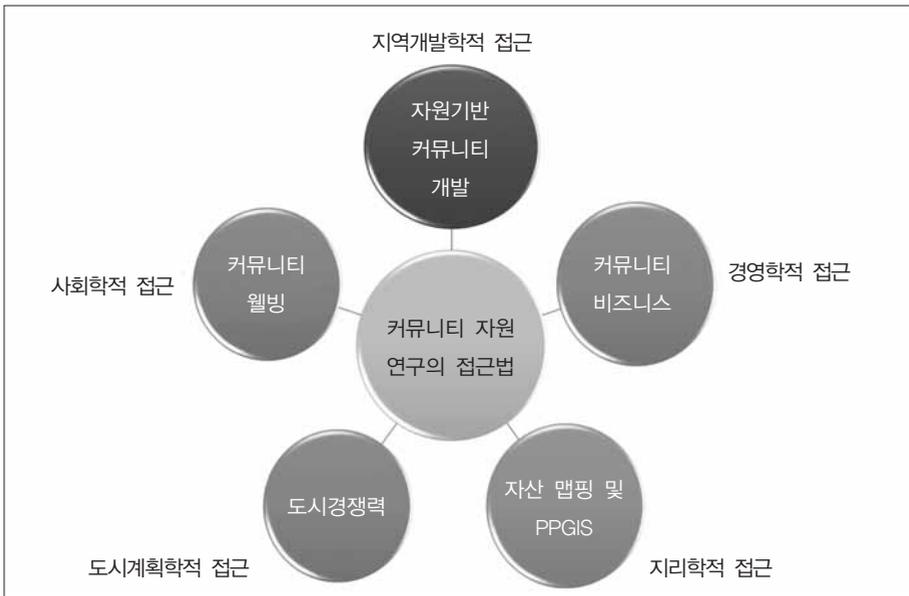
제2절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접근들

커뮤니티 자원의 개념은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들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명시적으로 커뮤니티 자원 또는 커뮤니티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커뮤니티 자원에서 사용하는 구성요소라든지 기본전제 및 사고방식을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커뮤니티 연구에 있어서 내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각각의 접근방식들을 이해하고 각 접근방식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의 커뮤니티의 수준이나 상태를 평가하는 다양한 접근법들은 커뮤니티 자원에 대해 나름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각 접근법들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각 특징들을 분석하는 것은 커뮤니티 자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줄 수 있다. 한편, 커뮤니티의 수준, 상태를 평가하는 기존의 모형들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먼저 발달이 되고 학술적인 개념정의나 이론적 논의들은 최근에 시작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현재에도 개념적으로 모호성이 있고 이론적 정교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들과 커뮤니티 자원 연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이론적 개념정립에 혼란이 야기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의 커뮤니티 수준을 평가하는 다양한 접근들도 커뮤니티 자원과 관련하여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이론적 특징들이 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방법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다섯 가지 접근방식은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커뮤니티 웰빙,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시경쟁력, 자산맵핑 및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PPGIS)이다. 이들 접근방법들은 그 학문적인 뿌리에 있어서 서로 구분될 수 있다.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은 지역개발학적 접근, 커뮤니티 웰빙은 사회학적 접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경영학적 접근, 도시경쟁력은 도시계획학적 접근, 자산맵핑 및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은 지리학적 접근에 가까운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접근방법들이 다양한 학문적 접근들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한 학문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차별적 특징들로 볼 때, 각 학문적 입장이 강조되어 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구분해보자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들을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커뮤니티 자원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들



이 다섯 가지 모형들을 설정한 것은 각각이 커뮤니티의 상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형들이고, 그리고 커뮤니티 자원 개념을 명시적,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거나 활용하고 있는 모형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설정한 다섯 가지 모형들은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모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활용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는 단순히 커뮤니티 자원 이론과 유사 이론의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자원 개념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다섯 가지 모형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의 개념을 이론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도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와 관련이 있는 모형들을 설정하였다.

1. 지역개발학적 접근: 자원 기반 커뮤니티 개발 이론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이론은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접근방법들 중에서 커뮤니티 자원 개념을 가장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접근이다. 커뮤니티 자원이라는 개념이 대두하게 된 것도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이론에 의해서이다. 이런 이유에서 커뮤니티 자원과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이론을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자원 개념은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이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비록 명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활용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자원 개념을 자원기반커뮤니티 개발이론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단, 커뮤니티 자원이라는 용어가 확산된 것은 자원 기반 커뮤니티 개발 이론에 의해서라는 것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BCD) 모형은 머리글자를 따서 ABCD 모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지역개발학적인 관점에 입각해 커뮤니티의 강점으로서 자원을 발굴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자원기반커뮤니티 개발은 커뮤니티의 자원형성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데, 복미를 시작으로 해서 커뮤니티 개발 실무자들에 의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에서 커뮤니티에 의한(community-driven) 개발로서 주목받고 있다.

자원기반커뮤니티 개발 모형은 그동안의 지배적 패러다임이었던 필요기반(needs-based) 접근방식에서 정부조직이나 비정부기구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에 한계를 느껴왔던 이들에게 특별히 환영받았다. 대안적 접근으로서 자원기반접근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자원들을 사람들(people) 스스로가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즉,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창조해나

가는 접근법이다. 자원기반접근법은 비공식적 조직이나 지역사회의 자발적 조직들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회적 자본이나 개별적 재능들의 활용이라든지 하는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자원기반접근은 국제개발원조의 시각에서도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형의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자유주의적이고 시장주의적인 개발정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정부역할에 대한 사회적 계약을 약화시킨 것과 연관이 있다.

자원기반접근법을 처음 주장한 것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정책연구소(Institute of Policy Research)의 McKnight 교수 연구팀으로서 미국적인 상황에서 성공적인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존의 필요기반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다. 기존의 필요기반접근에서는 정부기관, 대학, 자선단체 등이 지역의 필요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러한 필요를 분석하여 어떻게 필요를 충족시킬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왔었다(cf. Kretzmann, & McKnight, 1993). 그러나 이러한 필요기반 접근에서의 개발 과정에서는 원래 의도치는 않았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치우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 McKnight 교수 연구팀의 주장이다. 즉, 커뮤니티의 문제점 중심, 부정적인 요소의 제거 중심의 접근은 오히려 지역발전과 커뮤니티의 역량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2-2>는 필요기반 접근과 자원기반 접근을 비교하고 있다.

<표 2-2> 필요기반 접근과 자원기반 접근의 비교

	필요기반 커뮤니티 개발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출발점	욕구(니즈, 부족)에서 출발	자원에서 출발
목표	제도적 변화 (institutional change)	공동체 형성 (community building)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관점	고객, 소비자	생산자, 소유자
대응 방식	문제에 대응	기회와 강점을 확인
개발의 초점	개인에 초점	커뮤니티/이웃과 공익에 초점
해결방식	프로그램(program)을 시행	사람들(people)의 능동적 참여

출처: Kretzmann, & McKnight, (1993)의 내용을 재구성

Kretzmann & McKnight(1993: 4-5)는 필요기반접근이 특정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봤다. 필요기반접근은 지역 리더십이 커뮤니티의 가치를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리더들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 스스로의 역량을 간과하게 되며,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커뮤니티 구성원은 시민(citizen)으로서 역할이 아닌 고객(client), 또는 소비자(consumer)로서의 역할만을 수용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자산의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발견하거나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Russell & Smeaton(2009)과 Kretzmann & McKnight(1996) 등은 필요기반접근에서는 커뮤니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부 등 외부 기관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커뮤니티 개발은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인식이 구성원 사이에서 만연하게 되며, 커뮤니티에서 이웃 간(neighbor-to-neighbor) 결속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필요기반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자원기반접근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요소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들로 제시된 것들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려내면 다음과 같다(Mathie & Cunningham, 2003).

- 커뮤니티 성공 사례를 수집하고 성공원인을 분석
- 커뮤니티 자산의 지도화
- 커뮤니티에서 추진 핵심 집단을 형성 및 계획을 위한 대표 그룹 소집
- 커뮤니티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자산의 관계를 형성

한편, Mathie & Cunningham(2003)은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네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소는 공유된 의미를 구성하고 긍정적인 탐구(appreciative inquiry)의 실행을 통한 학습이다.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에서는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탐구의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존하기는 하지만 자주 또는 충

분히 인식되지 못하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찾아서 밝히고, 이를 동원하여 커뮤니티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긍정적인 탐구는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의 최대치를 중심으로 하여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들을 야기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결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IDeA, 2010; 한상일, 2010). 이것은 성공의 요소들에 대한 공동의(collective) 분석 과정인데, 긍정적인 기억들에 대한 인터뷰와 스토리텔링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Elliott(1999)은 긍정적인 탐구의 과정을 변화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성공적인 경험들은 이후 커뮤니티의 행위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항(reference point)이 된다. 긍정적인 탐구 과정은 지식구성과 의사소통에 관한 이론 및 개인적, 집단적 동기부여에 관한 교육심리학적 이론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에 근거해 인격적 집단으로서의 커뮤니티가 가지는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조직, 혈연집단 등은 그 자체로 커뮤니티 자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 자원기반접근의 시각이다. 사회적 관계를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원기반 접근에서는 사회자본의 개념을 커뮤니티 개발에 적용하여,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 자체를 자원으로 활용하게 하는 커뮤니티 조직의 잠재력에 대해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외부의 환경과 연결시켜주는 고리로서도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한다.

세 번째 요소는 커뮤니티의 경제적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목적인다는 것이다.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은 사실 커뮤니티 주도의 경제개발 전략으로서 접근되고 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경제개발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소나, 삶의 질 요소에도 확장될 수 있다. 단, 그 시작점은 경제적 성과를 염두에 두는 지역개발전략 내지는 방법론으로서 접근되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경제개발에 대한 이론은 고전경제학에서의 개인적, 개체적 차원에서 노동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이라는 가정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커뮤니티 경제개발 이론은 집단으로서의 경제역량의 개발에 많은 강조를 한다.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역량 형성 관점으로 접근하여 집단적 행동을 통하여 인간 간 협조활동으로 스스로의 웰빙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커뮤니티 주도의 경제개발을 내생적(endogenous) 과정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네 번째 요소는 기존에 커뮤니티 외부의 기관들에게 있었던 권한을 커뮤니티에 다시 부여하는 권력재구성(relocation of power to community)이다. 참여적 발전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있어서 권한과 통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심적인 논의들이었다. 참여적 발전의 패러다임이 점점 개발학에 있어 주류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참여를 통한 효율성의 이점과 사회적 변혁과 민주적 가치로서의 이점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 접근법에서는 정부라든지 NGO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자문(consultation)의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덜 직접적인(less direct)” 관여가 커뮤니티에 더 성공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최근 들어 더욱 강해진 지방화, 분권화 흐름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2. 지리학적 접근: 자산 맵핑과 참여형 GIS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방법 중의 하나인 지리학적인 접근은 자산맵핑과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커뮤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방법론적인 접근에 가까우면서도 나름의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참여적이고 상향식이라는 점에서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접근방식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자산 맵핑과 관련된 논의를 독립적인 접근방식으로서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 자산 맵핑 방법이 오직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논의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지도화하고 맵핑하는 방법으로서 다양한

모형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점차 그 활용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자산맵핑기법은 커뮤니티의 거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파악하여 커뮤니티 지도를 작성하는 방식을 말한다(최현선 외, 2012: 57). 거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도가 증가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 내 다양한 개인 및 집단들과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촉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 접근방식의 방법론으로서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류재익(2004: 103)은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 접근방식에서 Krezman & Mcknight(1996) 등이 커뮤니티 역량 지도(capacity map) 활용을 제안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커뮤니티 자원이 지도를 통해 시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가 매우 부족했음을 주장한다.

최현선 외(2012: 57)는 커뮤니티 자산맵핑 기법의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기존의 사회통계적 조사를 통해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지리공간 구조 안에서 커뮤니티 자원을 맵핑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방법론으로는 해당 자원이 어떠한 지리적, 공간적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는데, 자산맵핑을 통해 이러한 정보의 축적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둘째,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회, 문화, 경제 분야의 자원을 물리적/지리적 자원과 연계하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산맵핑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분석되고 가공될 수 있으며 이것은 기존의 개발전략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커뮤니티 구성원의 시각에서 지역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강점 및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다. 커뮤니티 자산맵핑은 개념상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수조건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와 이 정보를 통한 전략의 수립은 커뮤니티의 핵심인 구성원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조사방식과는 다르다.

이러한 효용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맵 작성 참여자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한 지도작성도구 및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연숙 외(2010: 72)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맵 작성 도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즉각성으로 맵 작성이 단순하고 작성 속도가 빨라 의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수월성으로 시각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좋아야 한다는 것인데, 시각적인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 중심의 도구라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고 이해하기 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연성으로 논의과정에서 변경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범용성으로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흥미성으로 맵작성 도구의 즐거움 자체가 친근감과 상상력을 높여 참여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현실성으로 과장된 이미지가 아닌 현실적인 조건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 맵 작성의 다양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에서 실험적으로 만든 ‘걸리버맵’이 있는데, 이 지도는 지도작성 참여자들의 참여를 통해 도쿄에 있는 주거 지역을 1:1500의 비율로 지도화한 사례이다(Anderson, et al., 1994: 45-46). 걸리버맵의 지도작성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집과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을 표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지역커뮤니티와 지역환경에 대한 아이디어와 느낌, 의견들을 작성하였다. 이 걸리버맵의 작성 목적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주변 장소에 대한 느낌을 기록함으로써 사람들의 취향, 욕구, 애착 등을 지도로 표현하는 데에 있었다. 걸리버맵은 커뮤니티 참여에 관한 연구와 경관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연결시키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했고, 이것은 이후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Anderson, et al., 1994: 45-46).

이연숙 외(2010)는 주거지 정비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을 이미지맵 제작 도구’를 개발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거주민들의 대표적 지역 상징 장소, 정서적으로 애착감이 있는 장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장소 등을 스티커 형태의 도구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맵으로 만들었고, 이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다. 이 연구는 자산맵핑기법을 활용한 결과 주민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적극적인 참여, 정보의 교환, 시

간의 절약, 상호이해, 지역에 대한 관심 증진에 기여하였다고 결론짓고 있다.

한편, 최근 커뮤니티 자산맵핑기법에서 주목받고 있는 구체적인 도구로는 참여형 지리정보시스템을 의미하는 Public Participatory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PPGIS)가 그 자체의 논의로서도 큰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 및 행정에서 참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PPGIS는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박유리 외, 2009: 160). PPGIS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사용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 편리하게 커뮤니티 맵을 제작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3. 경영학적 접근: 커뮤니티 비즈니스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 중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는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커뮤니티를 바라보고 있다. 물론 커뮤니티 비즈니스 자체로만 보면 다양한 학문적 시각이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접근들 중에서 상대적인 강조점의 측면에 있어서는 경영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논의에서는 커뮤니티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모델로서, 비교적 커뮤니티 자원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모형이 주로 커뮤니티 자원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는 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형은 커뮤니티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비즈니스 방식을 제안하고 이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조건으로서 커뮤니티 자원을 바라보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의 발굴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커뮤니티 자원을 커뮤니티에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형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커뮤니티(Community)와 비즈니스(business)가 합성된 용

어인데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여 정의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2009)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는 활동으로서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모델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윤희(2010), 호소우치(2008) 등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다.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과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공통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일본에서 영국 등 서구의 협동조합 등을 벤치마킹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로 확산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1994년부터 일본에서 호소우치 노부타카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용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를 주장하면서 만든 용어인데, 이 용어가 일본 내 언론과 정부기관 등에 확산되어 사용하면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 용어를 우리나라 학자들 및 실무자들이 사용하게 된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희망제작소에서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문헌과 사례들을 소개해왔고, 삼성경제연구소 및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자료집을 생산했다. 그러나 학술적인 용어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고,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서구 학자들은 명시적으로 용어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러나 커뮤니티 기반 기업(*community based enterprise*) 또는 커뮤니티 기업가정신(*community entrepreneurship*)이라는 용어 등으로 유사한 논의가 다루어지고 있다(cf. Selsky & Smith, 1994; Peredo & Chrisman, 2006).

Peredo & Chrisman(2006)는 커뮤니티 기반 기업(*community based enterprise: CBE*)의 개념을 정의하는 연구에서 커뮤니티 기반 기업의 특징과 커뮤니티 기반 기업이 등장하게 되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커뮤니티 기반 기업(CBE)을 커뮤니티가 공공의 선을 위해(*in pursuit of the common good*) 기업가로서(*as*

entrepreneur) 그리고 기업으로서(as enterprise) 기업조직화되어(corporately)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Peredo & Chrisman, 2006: 310). 그러면서 커뮤니티 기반 기업을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한다(Peredo & Chrisman, 2006: 319-320). 첫째로 커뮤니티기반기업은 커뮤니티에서 사용가능한 기술(available community skills)을 기반으로 한다. 커뮤니티 기반 기업들이 기업활동에 사용하는 기술들은 그 지역의 거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도 일종의 자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기술 자원들이 커뮤니티 기반 기업의 성패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임을 또한 지적한다. 둘째로 커뮤니티기반기업은 다중의 목표체계(multiple goals)가 존재한다. 커뮤니티기반기업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문화적 목표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윤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커뮤니티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적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커뮤니티기반기업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에 의존(dependent on community participation)한다. 커뮤니티 내의 사회적 자본은 커뮤니티기반기업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적이다. 커뮤니티 구성원의 참여는 커뮤니티기반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특히 중요한 요소이다.

삼성경제연구소(2009)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역 내 고용창출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반 기업보다 더 탁월하다고 그 특징을 설명한다. 이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투입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여 지역 내 자본에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이다.

김명진(2012)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징을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첫 번째 요건은 사업성인데, 이것은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사업수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는 있다는 것인데, 경제성과 공익성을 모두 추구하는 모형이다. 수익성 추구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에서도 경영학적 관점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명진(2012)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 예산의 3분의 1이 사업 수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장 차별성 있는 요건은 바로 지역성인데 이것도 필요 조건에 해당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비교적 명시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김명진(2012)은 단순히 사업입지를 특정 지역에 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필요 및 수요를 염두에 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혁신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논의되고 있으며, 이것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충분조건이라고 논의된다. 혁신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커뮤니티의 활동은 기존의 행정 모형이나 기업책임의 하도급 정도이지 진정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Peredo & Chrisman (2006)는 커뮤니티 기반 기업(community based enterprise: CBE) 모형에서 기업 가정신과 창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성이 과연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충분조건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학자들은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요건은 시민성인데 이것은 충분조건에 해당한다. 경영의 주체가 지역커뮤니티 구성원, 즉 시민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 자본 및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충분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사회 환원적인 목적을 위해 비즈니스의 이윤이 사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의 환경보호, 고용창출 등이 그 예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범주에 다양한 형태의 사업과 조직들이 속하게 된다. 이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분류하는 기준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김명진(2012)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사업형태에 따른 분류, 사업 분야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그 성격상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김윤희(2010)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의 구분을 통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을 학문적인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 이미 상당히 이론이 정립된 사회적 기업 개념에 비하여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실무차원에서 명확한 개념정의 없이 사용되어 왔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론적으로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운호(2010: 295)가 제시한 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일반주민에 의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윤 추구에 있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범위의 경제, 즉 적정규모와 적정이익의 추구를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조직 특성의 차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회적 기업의 이전 단계이고, 사회적 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성장한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리더십 측면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변혁적 리더십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기업은 거래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모형이라고 보고 있다. 커뮤니티 구성원의 (매슬로우) 욕구 단계 측면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상위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는 모형인 반면, 사회적 기업은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와 같은 하위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 구성원 간의 관계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얼굴이 보이는 관계인 반면, 사회적 기업은 익명성이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형을 커뮤니티 자원 개념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수익 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커뮤니티 자원을 바라보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의 자원은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활용되고 있지 않은 커뮤니티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탐색하고는 있지만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 모형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논리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형에서의 사실상 주된 관심사는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으로,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의 해결을 하자는 것이며 그 방식으로서 비즈니스 모형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커뮤니티 기반 기업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4. 사회학적 접근: 커뮤니티 웰빙

커뮤니티 웰빙 모형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커뮤니티 웰빙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또는 하위 구성요소)으로서의 커뮤니티 자원, 또는 커뮤니티 자원으로서의 커뮤니티 웰빙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모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는 자원 개발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복리증진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관련이 있다. 커뮤니티 자원 개념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커뮤니티 자원 개념에 속하는 상당부분이 커뮤니티 웰빙모형에서도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자원에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원 중 하나로 포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성이 매우 높은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측정측면에서도 커뮤니티 웰빙 지표들과 커뮤니티 자산 지표들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cf. Cox et al., 2010). 한편, 이론 및 측정 모형이 발전하고 분화해나가는 단계에서 커뮤니티 자원 모형과 커뮤니티 웰빙 이론은 서로의 차별성을 더 부각시켜나갈 과제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연구에 있어 선구적인 기여를 한 서재호 외(2012), 이승종 외(2013), 기영화 외(2013)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커뮤니티 웰빙 개념은 원래 이론적으로보다는 커뮤니티 내의 건강상태나 역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정의 역시 매우 다양하다. Hay et al.(1993)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욕구(aspiration)가 충족(fulfillment)된 상태를 커뮤니티 웰빙으로 정의한다. Ramsey와 Smith(2002)는 WHO의 건강한 커뮤니티 개념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웰빙을 사람들의 잠재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Ribova(2000)는 개인과 커뮤니티의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필요조건(requirement)를 충족시키는 것을 커뮤니티 웰빙으로 보고 있다.

The Scottish Development Centre for Mental Health(2003)는 커뮤니티 웰빙에 대해 단순한 생존을 넘어 번영(thriving)하는 것으로 보았고, 희망에 차고(hopeful) 건강하고(health) 지속가능한(sustainable) 상태를 지칭하였으며, 지역의 인프라와 서비스, 그리고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였다. Christakopoulou et al.(2001)는 커뮤니티 웰빙이 주거 커뮤니티, 사회적 커뮤니티, 경제적 커뮤니티, 정치적 커뮤니티, 그리고 개인적 심리적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ity of Calgary(2005)는 커뮤니티 웰빙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웰빙을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Cuthill(2002)은 자연적, 물리적, 재정적, 사회적, 인적 자원을 커뮤니티 웰빙의 고려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승중 외(2013)은 웰빙이 개인의 바람직한 심리상태로, 개인 내·외부 환경조건의 합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웰빙을 커뮤니티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웰빙에 대하여 이론화를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은 서재호 외(2012), 이승중 외(2013), 기영화 외(2013) 등의 연구이다. 이 연구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웰빙 이론의 논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가 웰빙의 분석단위 및 설명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 커뮤니티 웰빙 접근방식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서재호 외, 2012). 서재호 외(2012)의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에서의 웰빙의 합을 커뮤니티 웰빙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커뮤니티 웰빙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이론적 함의가 있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개체주의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합을 넘어서 집합적 수준에서의 웰빙을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서재호 외(2012)는 Sirgy et al.(2010)가 언급한 상향식 이전에 대한 모형을 구체화시켜서 다양한 분석수준을 종합하여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웰빙의 충족 상태가 개인에서부터 사회공동체로, 지방공동체(또는 지방정부), 국가의 단위로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모형이다. 기영화 외(2013)은 커뮤니티는 국가차원과 개인차원의 중간 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웰빙과 관련된 이전 이론에서는 커뮤니티가 개인의 웰빙과 구분

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기영화 외, 2013). 그리고 서재호 외(2013)는 커뮤니티 웰빙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에는 지방정부의 서비스와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전제가 중요한 부분이다. 즉, 공공서비스를 공급받는 단위의 지역 커뮤니티,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지역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웰빙의 단위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반대로 커뮤니티 웰빙 상태의 충족에 있어 지방정부가 이것을 가치 지향으로 삼고 충족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주장이다.

이들의 연구 내용을 개념적 차원에서 요약하면, 커뮤니티 웰빙은 개인 수준의 웰빙과 다르게 집합적 개념에 가까우므로 커뮤니티 웰빙 개념은 공동체로서의 웰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 서재호 외(2012), 기영화 외(2013), 이승종 외(2013)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커뮤니티 웰빙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 영역 내 외부 조건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개념화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웰빙은 공동체라는 체제가 외부환경 속에서 커뮤니티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산출을 낼 수 있는 지리적 외부환경의 기회를 비롯해 커뮤니티 내부의 전환능력이 있으며, 커뮤니티의 산출물이 공동체 내부에 만족을 줌과 더불어 공간적으로 외부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커뮤니티가 더 나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능력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된다(서재호 외, 2012). 그리고 집합적 수준에서의 커뮤니티 웰빙은 커뮤니티 내부에 있는 개인 수준에서의 웰빙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커뮤니티 웰빙을 집합적 수준으로 접근하는 모형은 기존에 이론적, 개념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었던 커뮤니티 웰빙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도시계획학적 접근: 도시경쟁력

도시경쟁력은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는 접근방식 중에서도 도시학적 또는 도시계획학적인 관점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접근방법으로 볼 수 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을 커뮤니티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소성과 관계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넓은 의미에서 도시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Davies & Herbert, 1993). 도시 경쟁력은 도시를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 이 도시 커뮤니티의 상태를 평가하자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른 도시와의 상대적인 측면에서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논리나 측정 지표의 측면에서는 커뮤니티 웰빙이나 다른 지역사회 평가지표와 상당히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 커뮤니티 자원 개념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보면, 우선 도시 경쟁력 모형은 자원이라는 용어를 비교적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도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에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

도시경쟁력도 학술적인 용도로 시작된 개념은 아니다. 행정기관과 언론 등에 의해 실용적인 목적으로 먼저 사용이 되기 시작하여 이후 연구자들에 의해 학술적인 개념 정의가 형성되어 온 것이다. 사실 도시를 비교하여 상태를 평가하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도시경쟁력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여러 이름으로 시도되어 온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성과를 도시단위로 해서 순위를 발표했었고, “Regional Trend”라는 보고서가 현재에도 생산되고 있다. 물론 최근에는 이 보고서가 경쟁력보다는 불평등 등의 사회적 이슈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Boyer(1985)의 “Places Rated Almanac”이라고 하는 연감이다. 이 연감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300개 이상 도시들의 순위가 수록되어 있는데, 물가수준(cost of living), 일자리(jobs), 주택(housing), 교통(transportation), 범죄율(crime),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들을 평가하고 있다. 연감이라고는 하지만 매년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몇 번의 업데이트가 있었다. 이 “Places Rated Almanac”은 순위산정 방식 등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하고,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영향력을 준 것은 사실이고 도시 경쟁력과 관련하여 고전처럼 되어 있다. 심지어는 이 연감의 도시 순위 산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종종 소송 등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할 만큼, 미국과 캐나다에서 널리 알려진 문헌이다. 이것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경쟁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순위’를 산정하는 것일텐데, 상대적인 경쟁력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경향이 더 있다. 물론 “Places Rated Almanac”가 발간되기 이전에도 Smith(1973), 그리고 Liu(1976) 등의 연구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이 적었다. 포춘 매거진(Fortune Magazine)은 순위의 범위를 세계 도시들로 확장하여 World's Best Cities라는 것을 발표하고 이 역시 대중 및 학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비슷한 것으로 1990년에 Population Crisis Committee에서 발표한 “Life in the World's 100 Largest Metropolitan Areas”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포춘 매거진의 세계도시순위보다 영향력이 적었다.

도시 경쟁력의 효시가 된 이와 같은 도시순위 문헌들은 주로 살기 좋은 도시의 관점에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삶의 질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점차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학술적 의미에서 발전되어 자리를 잡으면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력 이론에 영향으로 산업적, 경제적 측면이 점차 강조되어 온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Webster and Larissa Muller(2000)는 도시 경쟁력(urban competitiveness)을 정의하는데, 다른 도시지역에서의 재화와 상품에 비교하여 가치를 나타내는(present good value)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도시의 능력이라고 하여 산업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도시 경쟁력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Malecki(2002)는 국가경쟁력의 개념을 도시단위에 적용하는 의미에서의 도시 경쟁력(urban competitiveness)을 정의하고 있으며,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이 어떻게 도시 단위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urban competitiveness 또는 city competitiveness 라는 용어는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 학술적인 의미로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은 아니다. 종종 도시 계획학 분야의 학술지들에서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문헌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도시경쟁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도시경쟁력은 오히려 우리나라 행정기관과 언론, 학자들 사이에서 더 널리 쓰이게 되어 발전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병호·이재우(2008)는 도시발전, 또는 도시 정책의 차원에서 도시경쟁력 개념을 접근하고 있는데, 도시경쟁력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목적이 도시발전 정책의 입안 및 추진에 있어 도시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보는 의미에서라고 하고 있다. 한편, 유재운·조판기(1996)는 다른 도시에 비해 어떠한 강점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개념을 전개하면서, 도시경쟁력이 여러 측면을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포괄적 성격이 있으나 다른 도시보다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상대적 우위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권태형 박종화(2010: 4)는 도시경쟁력을 생산성 제고과정에서 도시들 간의 경쟁을 전제하여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경쟁력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산업적 의미에서의 상대우위와 삶의 질이나 웰빙 측면을 결합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현주 외(1997)은 도시경쟁력을 도시의 경제여건을 개선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개발로 연계될 수 있는 능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정도로 개념정의 하고 있다. 최유진·홍준현(2007)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광의로는 한 지역이 가지고 있으며 동원가능한 인적·물적 자원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기업, 도시주민이 개별적으로 혹은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창출요소로서 도시의 산업경쟁력, 도시사회의 인적 자원과 통합력 등 도시의 총체적 잠재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의로는 도시의 내부 효율과 외연능력이 타 도시보다 우월한 상태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 모형은 삶의 질 관련 논의와 경쟁력 관련 논의가 도시 수준에서 결합된 성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시의 상태에 대한 평가와 순위산정은 원래 삶의 질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되었는데, 이후 마이클 포터의 경쟁력 개념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의 차원에서 모형을 발전시키면서 산업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도시 경쟁력 모형에서 도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까지는 개념화되지는 않았다. 도시라는 비교적 가시적이고 직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단위로 인해 커뮤니티에 대한 다른 접근 모형들에 비해서는 분석의 단위가 되는 도시에 대한 학술적 개념 정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 자원 개념과의 관계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도시 경쟁력 모형은 도시라고 하는 커뮤니티의 단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모형인데, 이 도시 경쟁력 모형의 시작이 살기 좋은 곳, 즉 장소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리공간의 중요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커뮤니티 내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도시경쟁력 모형이 학술적인 개념과 이론으로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 도시라고 하는 단위의 특징과 개념화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시경쟁력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살기좋은 곳을 평가하지는 취지와 경쟁력 이론의 적용으로 산업면에서의 경쟁력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물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과 산업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론적 측면에서는 이 둘과의 관계를 도시 경쟁력 모형에서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살기좋은 곳을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경쟁력’을 정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발로하는 투표’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어지는 티부 모형과 같이 도시들이 이동성, 또는 이주가능성 있는 거주민들이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경쟁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거주민들의 유입은 도시 또는 도시정부 입장에서 세수나 인적 자본 등 더 많은 자원 및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도 된다. 한편, 산업적인 측면에서 마이클 포터의 경쟁력 개념을 적용하게 된다면, 거주민들이 살기좋은 곳으로 유입되게 하는 경쟁이 아니라 기업을 유치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하는 면에서 도시들이 경쟁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이론화될 수 있다. 최근에 도시경쟁력 관련 문헌들에서 ‘글로벌 도시’에 관한 논의들을 언급하면서 세계화된 금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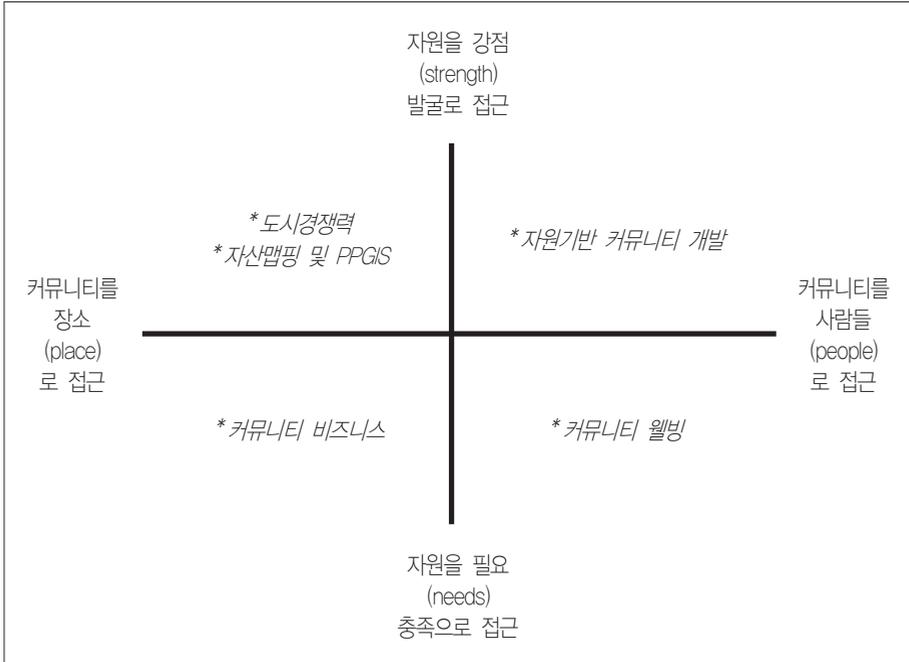
시장의 환경에서 다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글로벌 도시의 개념을 도시경쟁력과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접근은 산업적 측면에서 기업 및 금융자본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도시경쟁력의 개념화에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경쟁력 모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각 도시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도시들이 무엇을 목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이 경쟁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이론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3절 이론적 접근의 종합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인 접근들은 서로 공통점을 공유하는 한편, 각기 다른 시각으로 커뮤니티와 자원에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상의 상대적인 강조점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과 자원에 대한 접근을 기준으로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2>와 같다.

커뮤니티의 속성 중에서 “장소(place)”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속감과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people)”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과 관련해서는 자원의 속성 중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필요(needs)”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커뮤니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커뮤니티의 “강점(strength)”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구분을 해볼 수 있다. 물론 모든 접근들은 상대적인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다른 접근에서의 강조점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커뮤니티에서 장소의 요소와 사회적 관계 및 인적 집단을 모두 의미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공간적/지리적 요소를 강조하는 접근이 있고, 상대적으로 집단적 정체성 및 소속감 등을 강조하는 접근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도 그 용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자원을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고 결핍을 해소시키기 위한 자산으로 접근하는 시각과 자원을 커뮤니티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발굴해내야 하는 커뮤니티의 강점(strength)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2〉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이론적 시각 비교



이론적 시각을 도식화한 <그림 2-2>에서 각 접근방법을 해당 위치로 구분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은 커뮤니티를 집단(people)으로 접근하고, 자원을 커뮤니티 강점(strength)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접근방법에서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연결망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이 커뮤니티 자원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이기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커뮤니티를 사람들(people)의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결핍 내지는 문제해결보다는 커뮤니티의 기회와 강점을 발굴하여 커뮤니티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을 강점(strength)의 발굴 차원에서 접근하는 대표적인 접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산 맵핑 및 PPGIS는 커뮤니티를 장소(place)로 접근하고, 자원을 커뮤니티 강점(strength)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자산맵핑

과 PPGIS는 장소를 근거로 하여 지역사회 및 커뮤니티의 공간적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참여를 통하여 자원의 지리적 위치를 파악하여 공간분석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를 장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민들 및 커뮤니티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람들(people)로서 커뮤니티를 고려하는 측면도 존재하며, 실제로 사람들의 집단 측면을 강조하는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의 핵심적인 접근방법 중의 하나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산맵핑과 PPGIS 자체의 주된 목적은 지역의 지리적, 공간적 정보의 축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소적 특성을 강조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원에 대한 시각 측면에서는 자원을 강점 또는 기회로서 바라보고 발굴하는 관점에 속한다. 자산맵핑기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지역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들을 지도상에 나타내고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점에서 자원의 강점 측면을 강조하는 관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커뮤니티에 대해서 장소(place)로 접근하고, 자원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필요의 충족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관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핵심적인 요소로 지역성과 시민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 접근이면서도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유사 개념인 사회적 기업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지역커뮤니티로 한정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방법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는 필요의 충족 또는 결핍의 해소라는 시각에 초점이 있다고 구분하였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지역문제의 해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수익성 및 사업성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점이라든지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원에 대하여 강점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논의에서 이러한 것은 커뮤니티 단위의 강점 또는 경쟁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비즈니스 단위의 사업 경쟁력을 말하며, 실질적인 초점은 사업모델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필요적 접근방법에 더 가까운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웰빙은 커뮤니티를 사람들(people)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자원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필요(needs)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커뮤니티 웰빙은 개인수준의 웰빙에서 나아가 집합적, 집단적인 수준에서의 웰빙의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으며, 커뮤니티를 일종의 체제론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기 때문에 장소보다는 사람들을 강조하는 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지리적인 한계나 공간적인 범위에 대한 전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인 중요성은 사람들 간의 인적 결합으로서의 커뮤니티를 더 강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욕구가 충족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에 대해서는 필요(needs)의 충족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경쟁력은 커뮤니티를 장소(place)로 접근하고, 자원을 커뮤니티 강점(strength)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경쟁력은 우선 도시라고 하는 범위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 도시라고 하는 범위는 지리적, 공간적 단위라는 특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적 결합 요소보다는 장소적 특성이 강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에 대한 접근방법에서는 다른 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지는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주된 관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필요의 충족보다는 강점의 발견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각 접근방법들의 특성을 나누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별 구분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행정학에서 관심이 적고 명시적으로 잘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이 바로 “사람들(people)”과 “강점(strength)”를 강조하는 자원기반 커뮤니티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즉, 기존의 행정학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등 공공의 영역에서는 주로 커뮤니티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결핍을 해소하는 역할 위주로 접근하거나, 커뮤니티를 장소적, 공간적 단위로서만 활용하려는 접근방법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자원의 강점을 발굴하여 커뮤니티 개발을 하고,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의 인적 결합의 특성을 활용하는 자원

의 생산자로서의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대표적인 예로,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접근방법에 따라 지방정부 등 공공영역이 어떤 시각으로 커뮤니티의 자원을 발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 및 역할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었다. 그런데, 커뮤니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커뮤니티 자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대적 강조점의 차이를 지방정부 역할과 관련하여 도출한 것이 다음의 <표 2-3>과 같다.

<표 2-3>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방법별 지방정부의 역할

	커뮤니티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
자원기반 커뮤니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자원의 소유자이자 공동생산자 역할 - 커뮤니티의 강점과 기회발견 및 탐색 - 자원형성(asset-building)의 실질적 주체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커뮤니티를 통한 내생적 발전 유도 - 커뮤니티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및 권한 부여 - 커뮤니티 구성원 스스로의 능동적, 주도적 역할 부여를 위한 교육훈련 - 커뮤니티 내의 상호작용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커뮤니티 비즈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 있는 공동체사업을 통한 이윤을 활용해 지역의 공공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 자부금 지원 - 커뮤니티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공공문제를 제시하고 공동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자산 맵핑 및 참여형 G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희자원에 대한 지리정보의 수집 및 지도화에 참여 - 지리정보의 발견 및 생산 - 자원에 대한 질적 정보를 지리정보와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작용적 GIS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지도시각화 Tool의 개발과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 - 지리정보 수집에 대한 시민참여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도시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커뮤니티의 상대적 경쟁우위 요소들을 발견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개발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에 기업 및 개발자본을 유치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 조성 - 기업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완화 및 면제혜택 제공 - 지역경제개발 인프라 제공
커뮤니티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웰빙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커뮤니티 구성원들의 개별적, 집단적 웰빙육구의 파악 및 추구

커뮤니티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법의 장점들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한편, 현재의 커뮤니티 맥락과 환경에 맞는 접근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접근들 중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자원 기반 접근방법이며,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 접근방법의 시각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자원기반 접근방법은 커뮤니티 발전의 내생적 접근방법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지역을 개발시키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의 차원에서도 그 가치가 크다. 더구나, 지방 정부와 같은 국가기구들이 모든 공공서비스의 생산자이자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시대가 지났으며, 확실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 졌다. 이러한 차원에서 자원기반 접근방법이 갖는 적실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단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입장에서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발전가능성과 문제해결 요소들을 외부에서 다 해결하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지역발전의 시각을 내생적인 발전으로 변화시켜 내부적인 관심에서 지역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원기반 접근방법을 주된 분석의 초점으로 두되, 나머지 다양한 접근법들의 장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커뮤니티 자원 관련 모형들은 커뮤니티 자원의 발굴에 초점을 둔 것인지, 커뮤니티 자원의 상태 및 수준을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커뮤니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차이점이 있으며 이렇게 다른 강조점들에 대해서 커뮤니티 자원 개념 활용 시 이해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커뮤니티 자원의 발굴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모형은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 모형과 커뮤니티자산맵핑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내에 이미 확보하고 있지만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 등으로 전환되고 있지 못한 유휴 자원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커뮤니티 개발

논의에 활용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커뮤니티 자원의 상태 및 수준을 평가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모형은 커뮤니티 웰빙 모형과 도시경쟁력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모형의 궁극적인 지향은 웰빙과 산업경쟁력 두 가지로 서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향점을 위한 영향요인 또는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자원의 상태와 수준을 평가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웰빙 모형에서도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의 자원들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도시경쟁력 모형에서도 주관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자원들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태 및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들도 상당한 유사성을 가진다. 그리고, 최근 커뮤니티 웰빙 논의에서는 커뮤니티의 단위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 단위와 연관하여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경쟁력 모형과 관련성이 더욱 크다. 커뮤니티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모형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 커뮤니티의 문제해결과 필요충족에 있지만,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형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커뮤니티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형은 비즈니스 모형을 제시하고 커뮤니티 자원의 활용 방안으로 모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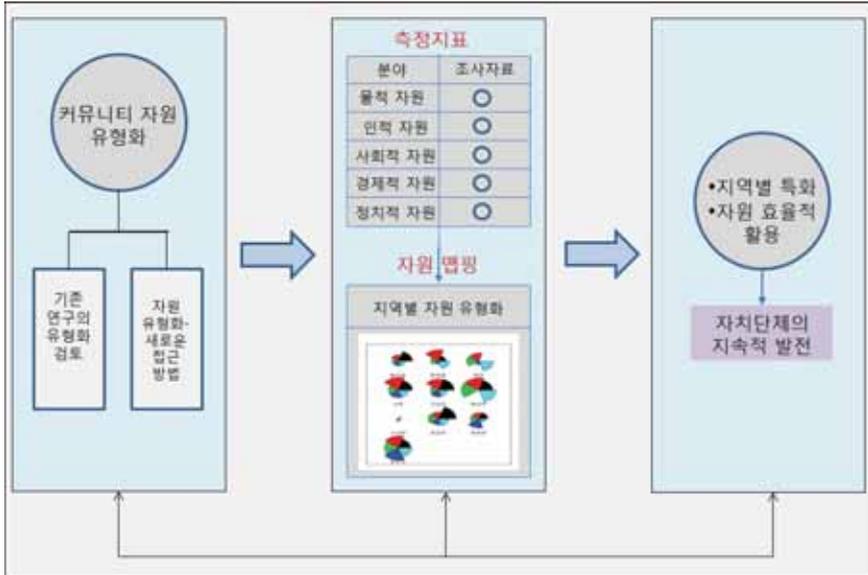
제1절 커뮤니티 자원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자원을 실제로 측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하에서는 국내·외의 기존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원유형을 검토한 후, 본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자원유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자원 유형화에 기초하여 자치단체의 읍·면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비교·분석하며, 주관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자원유형은 우선적으로 5개 분야, 즉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및 정치적 자원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유형별로 하위 구성요소로 세분화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초통계에 근거하여 자원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설문조사는 5개 분야 각각에 대하여 5-6개 이내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로 한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 자원 측정을 토대로 커뮤니티의 자원을 맵핑하도록 한다. 자원 맵핑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자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자원의 지리적 분포에 대한 시각화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자원의 맵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활용 전략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생적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 자원을 유형화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앞서 다룬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이론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정한 것이다. 커뮤니티 자원에 대해서 접근하는 다양한 이론적 모형들의 시각 중에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해서 현재의 상태 및 수준을 주민들의 주관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접근을 취하였다.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 모형들은 자원의 발굴, 자원의 맵핑, 자원의 수준에 대한 평가, 자원의 활용방법 제시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발전되어 온 것인데,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는 자원의 수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 자원 수준에서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기초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커뮤니티 단위에서 커뮤니티 자원의 상태 및 수준을 실증적인 측면에서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했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주관적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가 기여하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티 단위에서 커뮤니티 자원의 상태를 주민들의 주관적 인식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 어떠한 측정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의 접근은 전형적인 자원기반커뮤니티 개발의 상향식 접근과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요한 행위자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행위자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확산 가능한 측정방법을 탐색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실증분석의 주요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 커뮤니티 자원을 측정하는 연구들 중에서는 유희자원들을 중심으로 특정한 자원들(주로 장소 자산 등 물리적 요소들인 경우가 많음)을 발굴해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고, 커뮤니티 자원의 상태를 주관적, 객관적 요소들(무형의 요소들을 포함함)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어왔다. 커뮤니티 자원 개념이 실무적으로, 학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분류의 연구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정한 물리적 자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의 실제적인 대상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회적, 주관적, 심리적 차원을 비롯한 다양한 무형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의 전반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커뮤니티 자원의 측정 측면에서 보면, 물리적, 장소적 자산을 발굴하고 유희자원에 대해 인식하는 접근들은 다양한 커뮤니티 조직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측면이 있는 반면, 지역커뮤니티 자원의 전반적 상태에 대한 비교 조사는 전문가 집단과 지방정부가 측정하여 조사하고 이를 다양한 커뮤니티 조직 및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존에 지역커뮤니티의 자원 등에 대한 상태를 조사하는 연구들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지역 거주민들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다. 기존에는 특정한 커뮤니티 사업 단위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한다든지 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특정한 지역 커뮤니티를 사례연구처럼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단위에 있어 커뮤니티를 읍, 면 단위의 지역커뮤니티로 분석수준을 설정하고 조사도구를 적용하였다. 커뮤니티라는 개념 자체가 다차원적

이기 때문에 특정한 범위 설정만이 정확하게 커뮤니티 개념이 적용된 범위라고는 볼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역커뮤니티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읍, 면 단위의 지역범위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커뮤니티의 단위라고 판단하고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자생적이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커뮤니티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읍, 면 단위의 지역범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더 작은 지역단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커뮤니티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전제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읍, 면 단위 지역커뮤니티에서의 자원에 대한 측정이 더 유용한 접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커뮤니티 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있어서 지역커뮤니티 조직 및 커뮤니티 구성원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규범적인 전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정부에서 파악 및 활용하기 용이한 지역단위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읍, 면 단위를 적절한 분석 수준으로 보았다. 커뮤니티 자원의 발굴을 통한 커뮤니티의 자생적 발전 추구를 중요시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적절한 역할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의 시각이다.

본 연구에서 읍, 면 단위를 지역커뮤니티의 분석수준으로 설정하여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조사설계와 측정도구들을 커뮤니티의 다양한 형태 및 특성, 그리고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게 수정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읍, 면보다 더 작은 단위 또는 더 큰 단위에서 커뮤니티 활동이나 자생적 자원 개발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거나, 다른 분석수준에 연구자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면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도구는 측정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질적 정보의 양이 줄어들다는 단점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위 및 분석수준에 쉽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병렬적으로 분석 결과를 비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연구설계방식에 속한다.

제2절 기존 연구의 자원 유형화 및 측정 검토

1. 기존연구의 커뮤니티 자원 유형화

커뮤니티 자원의 유형화는 연구자의 연구초점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이왕건 외(2011)는 지역자원을 자연적 자원, 구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세부항목과 정의, 대표적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자연적 자원에는 장소적 자원과 환경적자원이 포함되고, 구조적 자원에는 공간적 자원과 시설적 자원이, 문화적 자원에는 역사적 자원과 관광적 자원이, 사회적 자원에는 인적 자원과 이미지 자원이, 경제적 자원에는 기업체 자원과 노동력 자원이 포함된다.

〈표 3-1〉 지역자원의 정의 및 구성요소

구분		자원별 정의	대표적 구성요소
자연적 자원	장소적 자원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접근성	- 시장 상권의 형성 정도 - 지역으로의 접근 용이성
	환경적 자원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쾌적성	- 어메니티 자원의 보유 정도 - 자연경관(강, 산, 바다, 평야 등) - 환경의 질적 수준(대기, 수질, 소음 등) - 특이한 지형, 지질, 동식물, 기후 등
구조적 자원	공간적 자원	지역의 공간 구조적 특성	- 건축물의 구성, 배치 등 - 고유하고 독특한 가로경관, 풍경 등
	시설적 자원	지역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특성	- 기반시설(건물, 상하수도, 도로, 항만 등) - 토지이용(주거, 공업, 상업 등) - 용도별 지역·지구 지정 여부 - 주거여건 등
문화적 자원	역사적 자원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 보유 및 활용성	- 문화재, 문화시설(유물·유적 등) -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역사적 장소·전설 등) - 근대 유흥산업시설 등
	관광적 자원	지역 내 예술·관광자원 보유 및 활용성	- 축제·이벤트, 예술작품 등 - 관광명소, 관광시설·관광지구 등

구분		자원별 정의	대표적 구성요소
사회적 자원	인적 자원	구성원들의 사회활동 정도 및 잠재력	- 지역공동체, 지역리더, 지역자생조직 등 - 인적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등(규범·신뢰·참여·리더·리더십·협력) - 구성원들의 행위·생활상 등
	이미지 자원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 정도	- 지역 정체성(문화적 다양성·개방성 등) - 지역 상징성(매력·브랜드·인지도·호감도 등)
경제적 자원	기업체 자원	지역 내 기업활동 기반 및 정도	- 기업의 규모, 경쟁력, 일자리, 기술개발, 조직 문화 - 정부의 지원 정도(인적·재정적 지원 등) - 기업의 지역내 융화 정도 등
	노동력 자원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정도 및 잠재력	- 지역내 노동력·노동시장·고용 프로그램 - 개인·집단의 경험, 지식, 교육정도 등

출처: 이왕건 외(2011:7).

노스웨스턴대학교의 ABCD 연구소는 자원의 공간적 위치와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자원을 유형화하였다(이왕건 외, 2011: 20). 즉 주민들의 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기준으로 핵심 건축블록 자산, 2차 건축블록자산, 잠재건축블록자산으로 구분한 것이다.

〈표 3-2〉 ABCD 연구소의 지역자원 유형구분

구분	특징	유형
핵심건축블록	커뮤니티내부에 있어 대개 근린차원의 통제가 가능한 자산과 역량	개별자산 군집자산
2차건축블록	커뮤니티 내부에 입지하지만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목적 기관 공공기관 및 서비스시설 기타 물리적 자원
잠재건축블록	커뮤니티 밖에 있으며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공공복지 비용 공공자산증대 비용 정보제공 및 교육

출처: 이왕건 외(2011).

영국 정부기관인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지역자원을

인적, 금융적, 물리적, 자연적, 사회적자원의 5개로 분류하였다(임순정 외, 2014). 인적 자원은 기술, 지식, 건강, 교육, 자신감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지위를 포함한다. 금융자원은 이자, 임금, 저축, 신용에의 접근성, 자본, 불법 수입으로 구성된다. 물리적 자원은 주택, 교통, 소유물, 학교, 기초인프라, 생산자, 상품으로 구성된다. 자연자원은 땅, 토양, 물, 숲, 어업, 공기 질로 구성되며, 사회적 자원은 비공식 네트워크, 공식화된 그룹, 협력, 가족, 친구, 개인 안전을 포함한다.

〈표 3-3〉 DFID의 자원 오각형의 내용

구분	내용
인적 자원	기술, 지식, 건강, 교육, 자신감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지위
금융자원	이자, 임금, 저축, 신용에의 접근성, 자본, 불법 수입
물리적 자원	주택, 교통, 소유물, 학교, 기초인프라, 생산자, 상품
자연자원	땅, 토양, 물, 숲, 어업, 공기 질
사회적 자원	비공식 네트워크, 공식화된 그룹, 협력, 가족, 친구, 개인 안전

출처: 임순정 외(2014).

한편, 김현호·한표환 (2004)은 향토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적 자원, 역사·문화적 자원, 자연·생태적 자원으로 구분한 바 있다. 산업적 자원은 공예자원, 향토주, 향토식품, 전통발효식품, 민속음료, 장인/명장으로 구성된다. 역사·문화적 자원은 문화유적, 거처/생가, 판소리/영화/연극, 문화예술인사로 구성된다. 생태·자연적 자원은 갯벌/해양, 동식물, 원시자연, 경관으로 구성된다.

〈표 3-4〉 향토자원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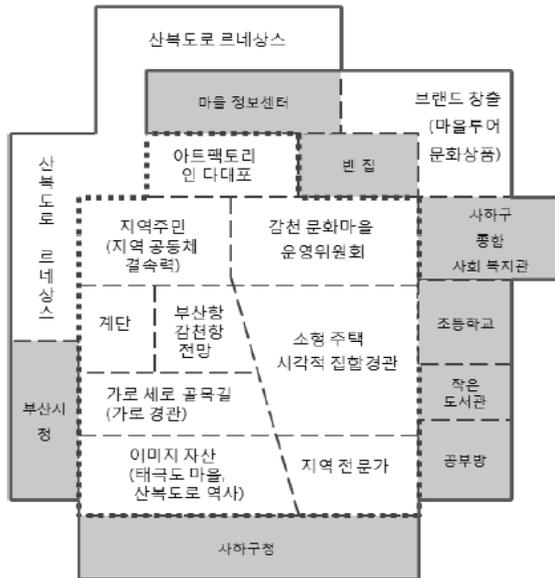
구분	내용
산업적자원	공예자원, 향토주, 향토식품, 전통발효식품, 민속음료, 장인/명장
역사·문화적 자원	문화유적, 거처/생가, 판소리/영화/연극, 문화예술인사
생태·자연적 자원	갯벌/해양, 동식물, 원시자연, 경관

출처: 김현호·한표환 (2004:19).

2. 기존연구의 커뮤니티 자원 측정방법 검토

커뮤니티 자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자산지도의 작성이다. 자산 지도는 활용 가능한 자산을 유형별로 구체적인 위치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도화한 것을 의미한다(이왕건 외, 2011: 21). 자산지도의 작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개인, 단체, 기관들의 구성을 파악하고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지를 작성하여 이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련과 현장 조사요원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림 3-2〉 지역자산지도의 예시: 감천 문화마을 만들기



범례	공간 구분	특성
⋯⋯⋯	1차 공간단위 :	근린지역 내에 위치하고 관리되는 자산과 역량
■	2차 공간단위 :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커뮤니티 내부 자산
□	잠재적 공간단위 :	외부주체가 관리하는 커뮤니티 외부 자산

출처: 이왕건 외(2011: 21).

최현선 외(2012)는 PPGIS를 활용하여 전주 테스트베드 지역의 커뮤니티 맵을 제작하였다. PPGIS를 이용한 커뮤니티 맵 제작의 단계는 ① 목적과 방향설정, ② 조사지표 설정, ③ 웹사이트 설정, ④ 조사용 도구 제작, ⑤ 조사원들의 자료 수집, ⑥ 수집된 자료의 웹사이트 입력, ⑦ 웹사이트에서 결과보기로 구성된다.

〈그림 3-3〉 PPGIS를 활용한 커뮤니티 자산 예시



	A	B	C	D	E	F	G
1	Location Name	Longitude	Latitude	Input Date	Category	Comment	Last Updated Date (MMDD2400YY)
2	공원	127.1487987	35.8282566	05/07/2011	녹지_근린공원	놀이거리 및 정자	50623253
3	공용전차	127.1426725	35.83062696	05/07/2011	기타	공용 전차	50623373
4	공용전차	127.1454567	35.82722140	05/07/2011	기타	신식 공용전차	50700153
5	공용전차	127.1477151	35.82523376	05/07/2011	기타	공용 전차	50700403
6	근대식 건물	127.1500682	35.82537512	05/07/2011	보존건물_근대건축물	기포 지붕	50700033
7	근대식 건물	127.1504851	35.82619717	05/07/2011	보존건물_근대건축물	기포 지붕	50700043
8	나대지	127.1489757	35.82812179	05/07/2011	방치된 외부공간	건축현황을 평오스텝개념아있는상태	50623283
9	나대지	127.1487799	35.827273	05/07/2011	방치된 외부공간	나대지	50623353
10	나대지	127.1488108	35.82723599	05/07/2011	방치된 외부공간	나대지	50623343
11	나대지	127.1482075	35.8283201	05/07/2011	방치된 외부공간	현물릭 규모 나대지	50623383
12	나대지	127.1484447	35.82686915	05/07/2011	방치된 외부공간	나대지	50700113
13	나대지	127.1481138	35.82684308	05/07/2011	방치된 외부공간	복용의 원형 나대지	50700143

출처: 최현선 외(2012: 62).

이와 같은 자산지도화 작업을 위하여 연구자들은 사전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조사하기 쉽도록 구역을 설정하고 사전 조사지표를 선정하고, 조사방법에 대한

교육 후 팀별 조사코스를 설정하여 실제 조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위치와 지리적 정보 이외에도 주관적인 지역의 특성을 구성하였다(최현선 외, 2102: 61).

한편,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자산 오각형 모형의 측정방법은 개인, 가족 또는 가구를 분석단위로 인터뷰, 참가방법, 표본조사, 현장조사 등과 같은 방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임순정 외, 2014). 인적자원은 2차자료, 참여적 방법, 표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금융자원은 선호순위/매트릭스 스코어링, 계절달력, 반구조적 인터뷰, 금융분석, 표본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물리적 자원과 자연자원은 표본조사와 참여적 방법을 통해 조사한다. 사회적 자원은 커뮤니티 전체 현장조사, 사회지도, 연대표, 매트릭스/선호순위, 밴다이어그램을 통해 조사한다.

〈표 3-5〉 DFID의 커뮤니티 자원 측정 방법

구분	측정방법
인적	2차 자료, 참여적 방법, 표본조사
금융	선호순위/매트릭스 스코어링, 계절 달력, 반구조적 인터뷰, 금융분석, 표본조사
물리적	표본조사, 참여적 방법
자연	표본조사, 참여적 방법
사회적	커뮤니티 전체 현장조사, 사회 지도, 연대표, 매트릭스/ 선호순위, 밴다이어그램

출처: 임순정 외(2014: 175).

제3절 본 연구의 커뮤니티 자원 유형화 및 측정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논의는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학자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정치적 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들 중에서 자원기반접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자원을 유형화하고 그 요소들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유형화는 자원기반접근의 시각을 적용한 Green & Haines(2012), Ferguson and Dickens(199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자원유형은 상호 배타적이며 범주 간 크기가 유사하다. 또한 각 자원은 향후 발굴로 이어진다는 실익이 있다.

자원의 측정방법은 커뮤니티 구성원의 인식조사 방법을 선택하였다. 즉 설문 방법을 통해 커뮤니티 자원의 각 요소에 대한 거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기존의 사회조사 방법과는 다른 다양한 방법들이 실험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그리고 물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주관적 평가보다는 객관적, 정량적 요소로 측정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이렇게 커뮤니티 자원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측정요소로 파악하려는 노력들은 커뮤니티 자원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측정도구의 이해도와 비용을 고려하면, 보편적인 측정도구로서 보급 및 확산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기존 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실험적인 방법론들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되, 많은 지역 커뮤니티와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때 이해하기 쉬우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조사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의 문제의식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논리를 반영하면서도, 비용과 측정용이성 및 도구이해도 면에서 활용성을 높인 조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사회조사방법으로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들에서 활용되어 오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방식이 있다. 설문을 통한 측정은 주관적 인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지적되어 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도구이다. 커뮤니티 자원 관련 논의의 지향성이나 학술적인 엄밀성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설문조사방식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조사의 비용과 활용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커뮤니티 자원의 평가 및 활용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설계를 통하여 읍, 면을 지역 커뮤니티 단위

로 하여 커뮤니티 자원의 수준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이 측정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도구의 개발 및 활용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적용하여 측정된 자료를 분석하고자 했다. 설문도구, 구체적으로는 설문문항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서의 중요한 함의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한편, 이 설문도구의 개발 목적이 주로 지역 커뮤니티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설문을 활용하는 커뮤니티 조직 또는 지방정부나 설문에 응답하는 커뮤니티 구성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각 설문문항들은 본 연구에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고 커뮤니티 자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한 것도 있다.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나 유대감 등과 같은 무형의 요소들에 대한 조사내용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 자원을 측정하고 평가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 및 커뮤니티 발전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커뮤니티의 물질, 인적 자원 등 유형의 자원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한 강조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커뮤니티 자원의 측정 및 분석 틀은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커뮤니티 자원을 파악함에 있어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본 연구의 분석틀은 조사의 수월성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자원 인식을 분석도구로 정량화함에 있어서 더 풍부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것은 커뮤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유희자원을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구는 조사기간 및 조사비용에 제약이 있을 때 적은 비용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자원의 전반적 수준을 탐색적으로 조사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다. 구체적인 커뮤니티 자원의 발굴을 위해서는 자원기반 커뮤니티개발 모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원조사지 작성이나, 자산맵핑 모형에서 사용하는 자산지도작성법이 추가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커뮤니티 수준의 자원에 대해서 읍, 면 단위를 범위로 정하여 조사된 연구나 사업이 부족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탐색

적 방법이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지역개발이나 커뮤니티 개발에 앞서 탐색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의 틀과 측정도구는 각 지역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평균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수준은 읍, 면 단위의 지역커뮤니티이지만 조사를 통해 측정되는 것은 개인수준의 인식인 것이다. 개인수준의 인식의 합, 또는 평균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집단의 특성을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사회과학적인 조사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설계에 있어 방법론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탐색적인 조사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도구가 지역커뮤니티의 전반적인 추세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는 데 있어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이 도구를 잘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면 지역 커뮤니티 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유용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의 측정방법은 연구수행상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설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읍·면 수준에서 경성자료가 매우 미흡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또한 자산지도 작성법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자산지도 작성을 위한 전담조직구성과 현장조사에 필요한 주민양성 등 일련의 준비를 위한 시간과 예산의 제약이라는 연구의 제약요인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신 체계적으로 구성된 설문항목을 통해 각 지역의 자원 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간 비교를 수행할 수 있는 인식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자원실태를 현재 수준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1.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은 도로, 빌딩, 철도, 다리 등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특히, 주택과 같은 물적 자원은 커뮤니티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터전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물적 자원이 부재할 때는 주민의 이탈 및 이동이 잦아지기 때문에 커

뮤니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물적 자원은 기본적인 필요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적 자원에는 환경적 자원도 포함된다. 환경적 자원은 커뮤니티의 기본적 자연자원인 공기, 물, 토지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경자원의 다양한 혜택과 활용 가치를 제공한다. 자연환경의 미관적 아름다움, 경작 가능 토지, 야생동물서식지, 물 공급 가능 지표수, 지하수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환경적 자원은 제반 환경으로서 커뮤니티 개발에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개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재라든지, 지하자원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뿐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 등으로 인하여 얻는 레크리에이션 효과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의 물적 자원은 다음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우리 지역(읍면)에는 기반시설(주택, 도로, 공원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는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자치센터,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의 자연환경(공기, 물, 소음)이 살기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환경자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인적 자원

인적자원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커뮤니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커뮤니티 자원 중에서 종종 개발이 덜 되어 있는(underdeveloped) 것을 보게 된다. 인적자원은 일반적 교육수준, 노동시장경험, 기술습득수준,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인적자원은 커뮤니티의 소득향상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구성원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커뮤니티의 인적자원 개발은 과거에 개인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의 자원기반커뮤니티개발 관점에서는 개인과 커뮤니티의 결합이 강조되고 있으며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의 인적자원은 다음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우리 지역(읍면)에는 읍면에서 배출한 유명인사가 많이 있습니까?
- 우리 지역(읍면)의 리더(유지)는 읍면을 잘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은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는 기술(재주)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원은 커뮤니티의 집합적 행동을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와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원은 다른 형태의 커뮤니티 자원(인적, 재정적, 환경적 자원 등)을 발전시키는 것에도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자원은 건강과 행복, 교육, 아동 복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원이 된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의 사회적자원은 다음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우리 지역(읍면) 주민들 간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습니까?
- 내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우리 지역(읍면) 주민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서는 주민들 간에 모임 등 교류가 많습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4.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커뮤니티의 경제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것이다. 커뮤니티들은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커뮤니티의 경제적 자원은 소규모 비즈니스의 활성화,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과 여건마련,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주민의 취업지원, 마을기업의 주민채용 등을 구성요소로 한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의 경제적 자원은 다음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우리 지역(읍면)에는 소규모 비즈니스(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는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과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에는 주민의 취업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는 지역(읍면)주민을 충분히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정치적 자원

정치적 자원은 기본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접근성을 의미한다. 즉 지역 커뮤니티가 해당 지역의 정책결정에 얼마나 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조직의 활성화, 지역주민조직의 참여 경험 및 지역 문제 해결의 참여의사 등이 정치적 자원의 요소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의 정치적 자원은 다음문항으로 측정하였다.

- 우리 지역(읍면)의 주민조직(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의 주민조직(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에 참여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 우리 지역(읍면)의 일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 지역(읍면)주민의 의견이 읍면의 사업이나 업무추진에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읍면)의 주민과 주민조직은 읍면의 의사결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지역(읍면)의 주민들은 새로운 생활규칙이 정해지면 믿고 따르는 편입니까?



제4장 커뮤니티 자원의 실증분석 : 울진군의 읍면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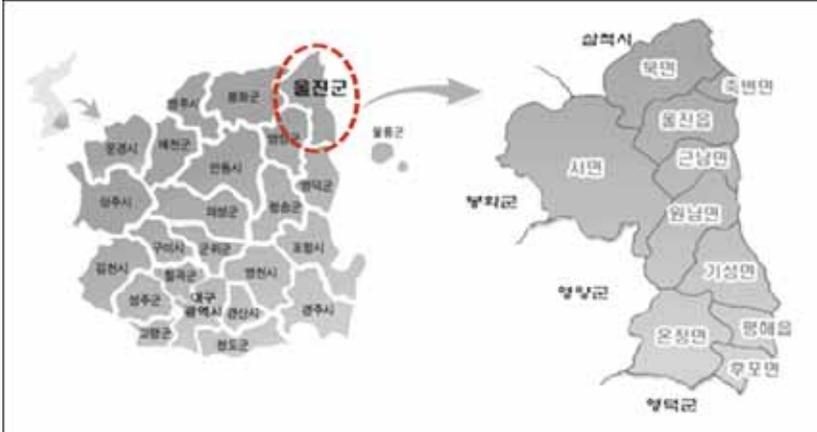
제1절 울진군의 일반적 자원현황

1. 지리적 현황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울진군은 경상북도 최동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89.37km²로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북도 관내 13개 군 중에서 봉화군(1,201km²), 의성군(1,176km²)에 이어서 3번째로 면적이 넓은 자치단체가 울진군이다. 인접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삼척시 원덕읍과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봉화군 소천면과 인접하고 있고, 서남쪽은 영양군 수비면과 일월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영덕군 병곡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다(<그림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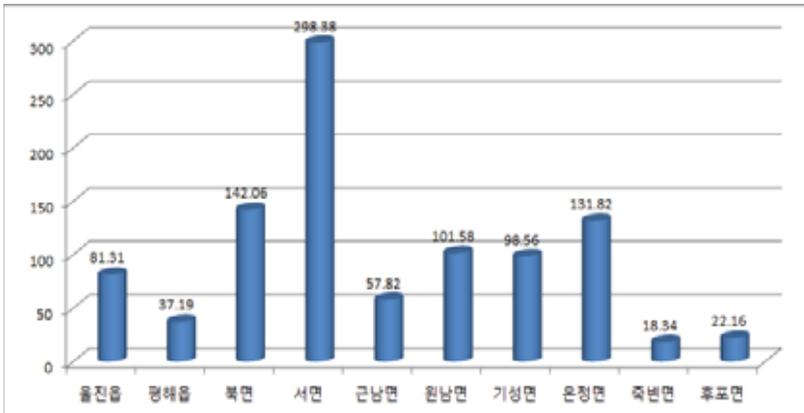
지형적으로는 백두대간의 중심, 즉, 태백산맥 하단부 동쪽에 위치하여 서쪽에는 남북으로 험준한 산들이 길게 뻗어 있으며, 동쪽은 동해안과 접하여 서고동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해발 300m 이상의 고산지대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대부분 농경지 또는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고, 하천을 따라 동부와 하구지역에 약간의 평야가 형성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림 4-1〉 울진군의 지리적 위치



울진군의 읍면별 면적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면의 면적이 298.38km²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북면(142.06 km²), 온정면(131.82km²), 원남면(101.58km²), 기성면(98.56km²) 등의 순으로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가장 적은 죽변면(18.34km²)의 경우 서면 면적의 약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읍면 간의 면적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울진군의 읍면별 면적 비교

(단위: km²)

2. 인구구성 현황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울진군의 총인구수는 52,681명으로 경상북도 13개 군 가운데 칠곡군(121,182명), 의성군(56,064명)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의 2013년 읍면별 인구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4-3>과 같다. 울진읍의 인구가 14,169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후포면(8,627명), 북면(7,156명), 죽변면(7,280명) 순으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볼 때, 북쪽으로는 울진읍, 죽변면, 북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후포면과 평해읍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그림 4-3> 울진군 읍면별 주민등록 인구(2013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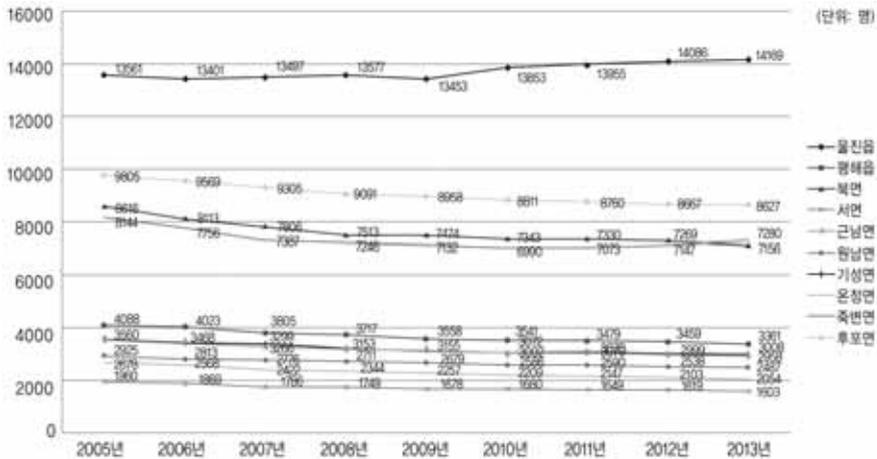
자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울진군의 읍면별 인구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읍면별 인구변화를 고찰하면 아래 <그림 4-4>와 같다. 울진군의 전체 인구는 점차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읍면별로 인구의 변화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해읍, 북면, 서면, 근남면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최근 들어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울진읍과 죽변면의 경우 2010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4> 울진군 읍면별 주민등록 인구변화(2005-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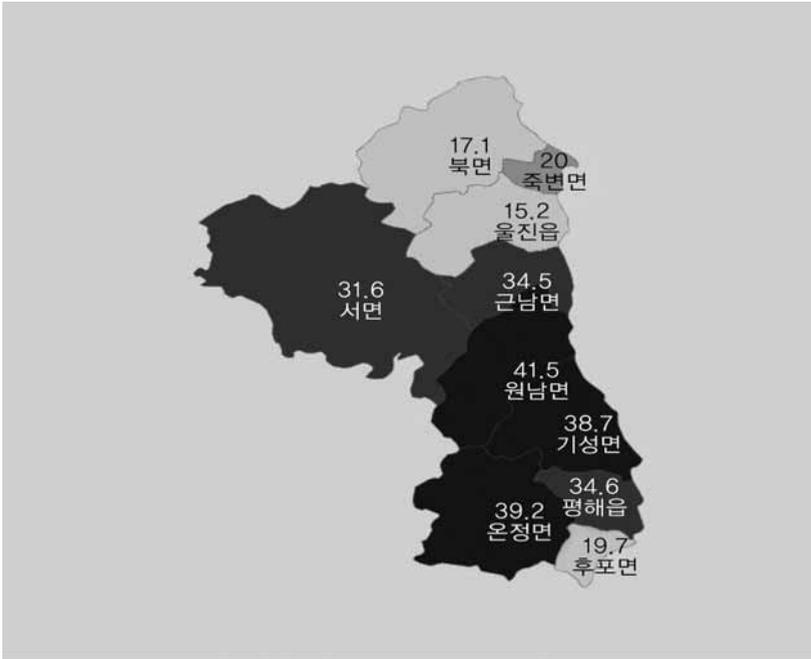
자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한편 울진군의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4-5>와 같다.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읍면별 고령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 정도는 원남면(41.5%), 온정면(39.2%), 기성면(38.7%) 등의 순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 그만큼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낮은 울진읍(15.2%), 북면(17.1%), 후포면(19.7%) 등은 젊은 인구가 많아 지역발전에 유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5〉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비율(2013년 기준)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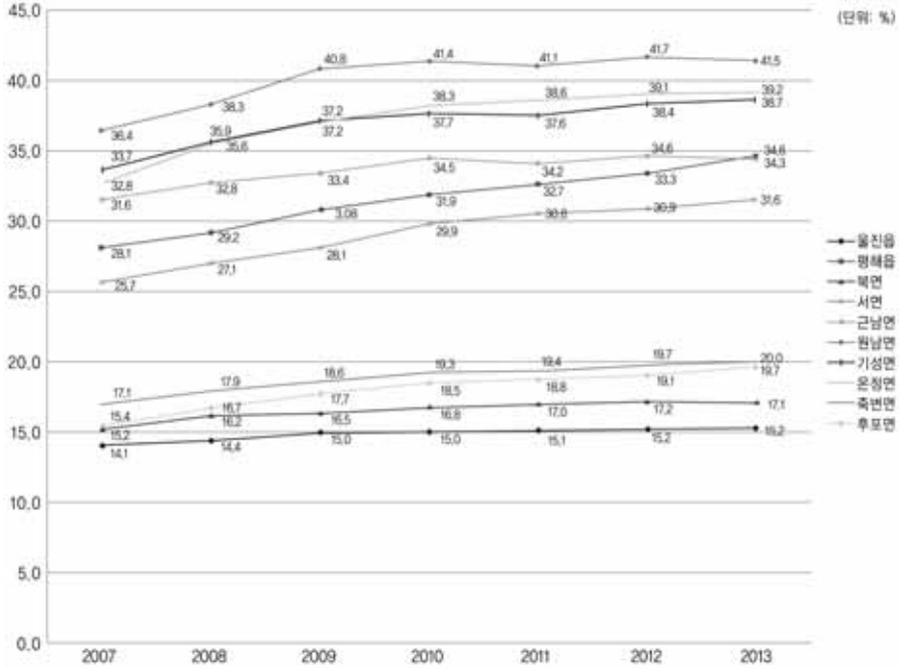


자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울진군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4-6>과 같다. 울진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부터 고령인구의 증가 속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울진읍과 죽변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북면과 근남면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고 있으며, 울진읍은 2012년부터 고령인구의 비율이 정체되어 있어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 65세 미만의 인구가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6〉 읍면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변화(2007-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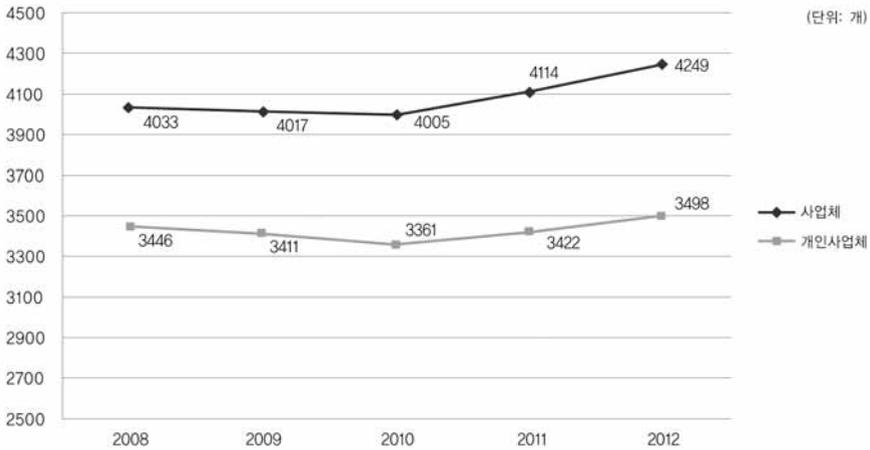
자료: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3. 사회·경제적 현황

울진군의 사업체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사업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7> 참조).

그러나 사업체 수 대부분이 1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자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의 성장동력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림 4-7〉 울진군의 사업체 및 개인사업체 수(2008-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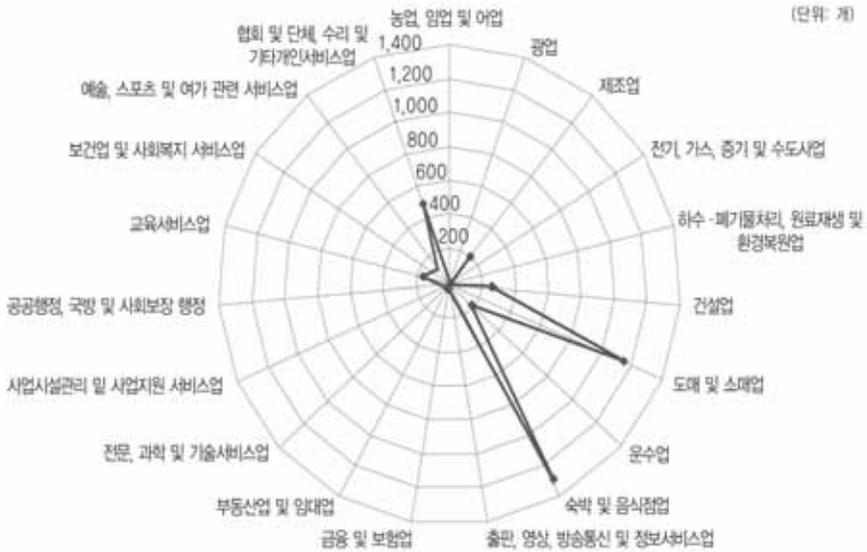
자료: 울진군 통계연보(2013)

울진군의 분야별 사업체 수(2012년 기준)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4-8>과 같다. 울진군은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그리고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비중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술하였던 것과 같이 1인이 종사하는 사업체가 많은 이유도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소비산업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체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활여건, 사회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재의 산업구조를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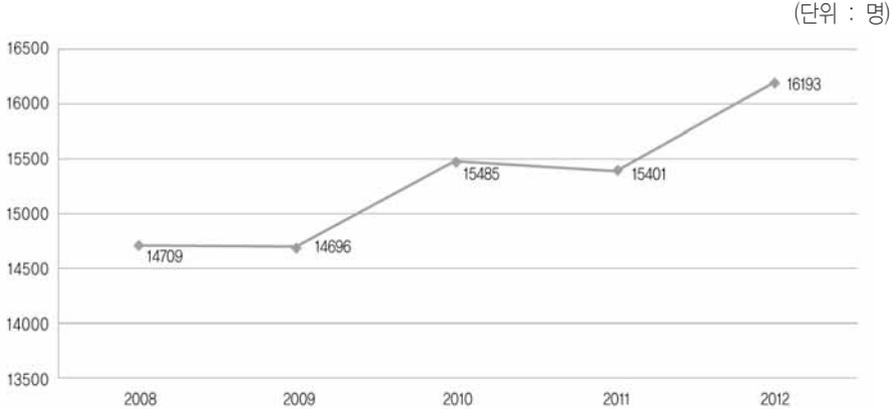
〈그림 4-8〉 울진군의 분야별 사업체 수



자료: 울진군 통계연보(2012)

울진군의 사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농업, 수산업, 임업 등 1차산업 종사자의 수가 감소함을 의미하고 있어 울진군의 산업구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울진군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달리 울진군의 인구대비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9〉 사업체 종사자 수의 변화(2008-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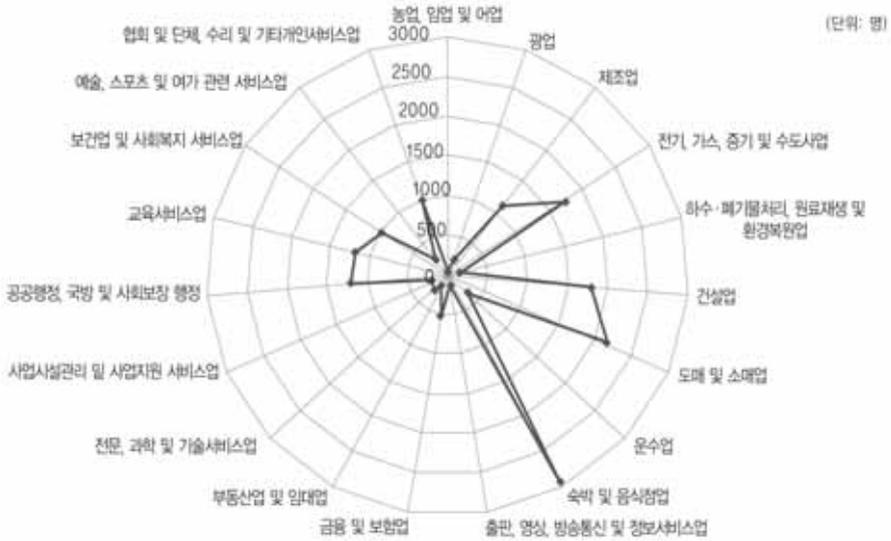


자료: 울산군 통계연보(2012)

사업체 종사자의 실태(2012)를 살펴보면, 사업체 수와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과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종사자 수 또한 이러한 업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설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 또한 많은 종사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사업은 사업체 당 종사자 수가 많아 일정규모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10〉 울진군 분야별 사업체 종사자 수(2012년)



자료: 울진군 통계연보(2012)

제2절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실증분석

1. 조사의 개관

커뮤니티 자원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울진군의 각 읍면별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그 결과 총 395부(79%)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거주지역을 응답하지 않은 7부를 제외한 총 388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설문지에서는 응답자 특성을 부분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커뮤니티 자원 문항에 응답하여 연구에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59.28%

로 여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에 있어서는 40대~60대 이상의 응답자 수가 많았다.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은 21년 이상이 전체의 53.35%로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력은 고졸과 대졸(전문대 포함)의 비율이 각각 42.01%, 35.82%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계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전체의 32.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직업은 자영업과 회사원이 각각 14.95%, 13.92%로 가장 많았으며, 거주지는 읍진읍이 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본 응답자 중 읍진읍에 거주하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월급 100~200만원 내외의 40대 이상의 자영업자나 회사원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들의 거주기간은 21년 이상으로 한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의 커뮤니티자원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1〉 응답자 특성

특성	지표	빈도	비율(%)
성별	남	230	59.28
	여	146	37.63
	무응답	11	2.84
연령	20대 이하	11	2.84
	30대	60	15.46
	40대	108	27.84
	50대	103	26.55
	60대 이상	97	25.00
	무응답	9	2.32
현거주지 거주기간	5년 이하	49	12.63
	6-10년	43	11.08
	11-15년	27	6.96
	16-20년	51	13.14
	21년 이상	207	53.35
	무응답	9	2.32
학력	중졸이하	67	17.27
	고졸	163	42.01
	대졸(전문대 포함)	139	35.82
	대학원 졸업 이상	11	2.84
	무응답	8	2.06

특성	지표	빈도	비율(%)
가계소득 (월 평균)	100만원 미만	75	19.3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5	32.2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92	23.7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6	11.86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2	3.09
	500만원 이상	27	6.96
	무응답	10	2.58
직업	농·축산업	114	29.38
	수산업	13	3.35
	자영업	58	14.95
	서비스업	31	7.99
	전문직	26	6.70
	회사원	54	13.92
	전업주부	34	8.76
	무직	18	4.64
	기타	37	9.54
	무응답	2	0.52
거주지	울진읍	82	21.13
	평해읍	47	12.11
	북면	49	12.63
	서면	42	10.82
	근남면	26	6.70
	원남면	20	5.15
	기성면	23	5.93
	온정면	42	10.82
	죽변면	26	6.70
	후포면	31	7.99
응답자 수		388	100

2. 커뮤니티의 자원 특성 비교

1) 물적 자원

울진군의 지역별 물적 자원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및 그림과 같다. 분석 결과 온정면과 울진읍 그리고 서면의 물적 자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북면과 원남면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자원의 각 항목별 수준을 살펴보면, 일반환경자원과 개발가능한 자연환경자산이 다른 물적 자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반시설은 다른 물적 자원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주민들에게 인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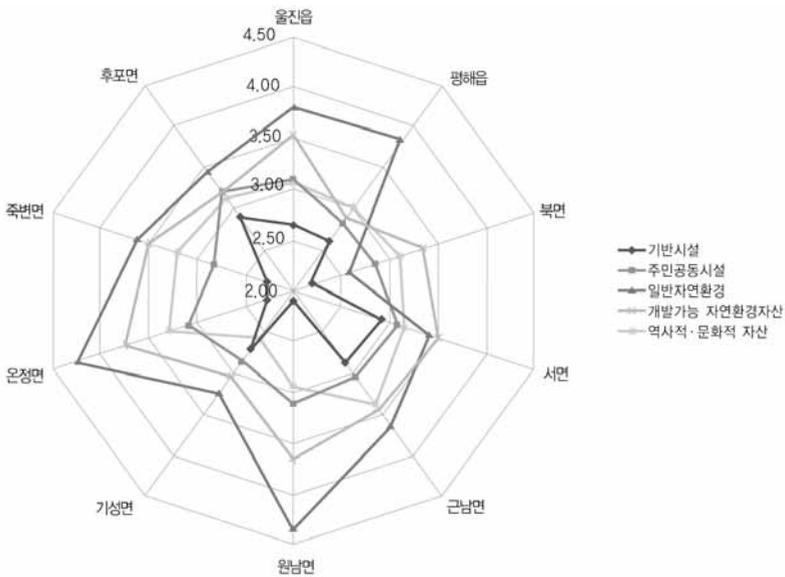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울진군의 주민들은 물적 자원 중 일반자연환경 관련 자산과 역사적·문화적 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1차 산업과 문화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육성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대부분의 농촌에서 지니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및 생활지원시설의 부족 등이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의 분석결과에서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주민공동시설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물적 자원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표 4-2〉 지역별 물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지역	기반시설	주민공동 시설	일반자연 환경	개발가능한 자연환경 자산	역사적·문화적 자산	지역별 평균
울진읍	2.64	3.09	3.81	3.56	3.06	3.23
평해읍	2.63	2.82	3.83	2.89	3.02	3.04
북면	2.18	2.86	2.58	3.35	3.11	2.82
서면	2.93	3.10	3.43	3.53	3.15	3.23
근남면	2.88	3.04	3.64	3.44	3.40	3.28
원남면	2.10	3.10	4.35	3.65	2.95	3.23
기성면	2.70	2.87	3.26	3.04	2.59	2.89
온정면	2.29	3.10	4.27	3.76	3.29	3.34
죽변면	2.28	2.84	3.64	3.50	3.21	3.09
후포면	2.90	3.20	3.47	3.20	3.13	3.18
요소별 평균	2.55	3.00	3.63	3.39	3.09	3.13

울진군의 지역별 물적 자원 분포를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울진군의 자산분포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반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서면, 후포면, 근남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북면과 원남면의 경우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울진읍과 평해읍이 평균수준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시화율이 높은 것과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11〉 지역별 물적 자원 비교



한편 주민공동시설은 후포면, 서면, 원남면, 온정면과 울진읍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해읍, 북면, 기성면, 죽변면은 주민공동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일반자연환경은 원남면, 온정면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기성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연환경자산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발가능한 자연환경자산의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발가

능한 자연환경자산에 있어서도 원남면과 온정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곳은 평해읍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자연환경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던 기성면의 개발가능한 자연환경자산 또한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적·문화적 자산은 상대적으로 근남면과 온정면에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기성면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의 분포는 전술하였던 일반자연환경 및 개발가능한 자연환경자산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주민들이 자연환경 자산과 역사적·문화적 자산 모두를 관광산업의 구성요소로써 인식하여 각각의 자원을 관광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사형 그래프에서 각각의 자산의 분포 형태가 다르다는 점은 주민들에게 관광자산으로 3가지 자산이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2) 인적 자원

울진군의 인적 자원의 평균은 2.79로써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자원의 구성요소 중 주민건강이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지역출신 유명인사는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울진군의 전반적인 인적 자원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되며 인적 자원의 구성요소별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물적 자원의 확충으로 보완할 수 있는 주민건강, 교육수준보다도 지역출신 유명인사, 지역리더의 리더십, 기술인력의 수준 등에서 자산의 수준이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은 지역의 인적 자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표 4-3〉 지역별 인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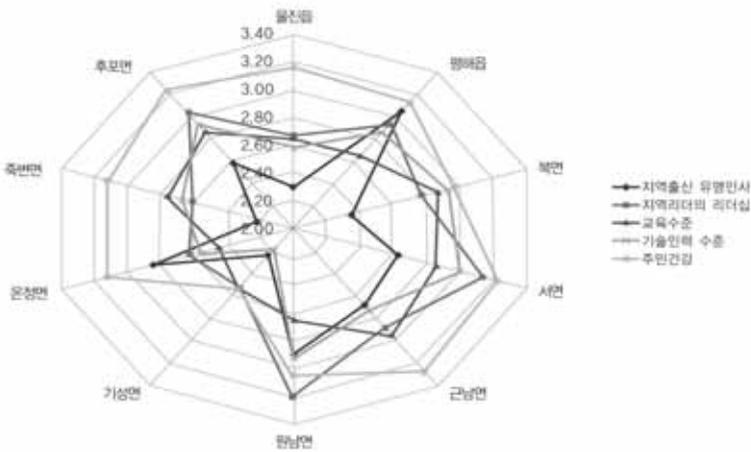
지역	지역출신 유명인사	지역리더의 리더십	교육수준	기술인력 수준	주민건강	지역별 평균
울진읍	2.31	2.68	2.66	2.59	3.16	2.68
평해읍	3.04	2.93	2.65	2.85	3.13	2.92
북면	2.35	2.78	2.86	2.92	2.96	2.77
서면	2.63	3.15	2.85	3.00	3.23	2.97
근남면	2.68	2.88	2.96	2.72	3.28	2.90
원남면	2.90	3.20	2.65	2.95	3.05	2.95
기성면	2.22	2.52	2.52	2.17	2.57	2.40
온정면	2.83	2.62	2.44	2.55	3.12	2.71
죽변면	2.21	2.60	2.75	2.67	3.12	2.67
후포면	2.58	3.03	2.87	2.93	3.23	2.93
요소별 평균	2.58	2.84	2.72	2.73	3.09	2.79

인적 자원의 분포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지역출신 유명인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평해읍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해읍 출신의 국회의원이 타 지역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성면, 죽변면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지역출신 유명인사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리더의 리더십은 원남면, 서면, 후포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울진읍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리더의 리더십이 낮은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의 교육수준은 근남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후포면, 북면, 서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정면, 기성면 등은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교육인프라의 구축만으로 지역의 교육수준을 높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울진군에는 현재 울진읍, 평해읍, 후포면에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의 교육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교육인프라가 교육수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술인력의 수준은 서면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원남면, 후포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성면, 온정면, 울진읍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인력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주민건강의 수준은 근남면, 후포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성면이 타 지역에 건강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2〉 지역별 인적 자원 비교



3) 사회적 자원

울진군의 사회적 자원 수준은 평균 3.02로 ‘보통’인 3점을 기준으로 특별히 높은 수준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지역자부심과 거주만족도가 구성요소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민간 협력, 주민유대감, 자원봉사 활성화는 다른 구성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구성요소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지표로 볼 수 있는 지역자부심이나 거주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참여나

신뢰와 관련되는 주민유대감, 주민간 협력 그리고 주민간 교류나 자원봉사 활성화는 사회적 자원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지역 주민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거나 혹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산들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 지역별 사회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지역	주민 유대감	주민간 협력	주민간 교류	지역 자부심	거주 만족도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별 평균
울진읍	2.79	2.88	3.08	2.83	2.91	2.88	2.89
평해읍	2.91	2.82	2.89	3.16	3.20	2.78	2.96
북면	3.02	2.88	3.02	3.38	3.25	3.15	3.12
서면	2.88	3.05	3.12	3.22	3.20	2.76	3.04
근남면	3.08	2.73	2.96	3.04	3.15	2.88	2.97
원남면	3.25	3.35	3.55	3.60	3.50	2.75	3.33
기성면	2.57	2.65	2.70	2.65	2.78	2.59	2.66
온정면	2.88	2.73	3.12	3.33	3.22	3.07	3.06
죽변면	2.92	2.73	2.96	3.08	3.08	3.12	2.98
후포면	3.00	2.97	3.00	3.45	3.53	3.19	3.19
요소별 평균	2.93	2.88	3.04	3.17	3.18	2.92	3.02

지역별 사회적 자원의 분포를 도식화 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먼저 주민유대감은 근남면과 후포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성면과 울진읍은 주민유대감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주민간 협력은 원남면과 서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며,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간 교류는 원남면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온정면, 서면, 울진읍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성면, 평해읍 등은 타 지역에 비해 주민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민간 교류, 주민간 협력, 주민간

4) 경제적 자원

울진군의 경제적 자원 수준은 평균 2.57로 다른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3점(보통)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역주민들은 울진군이 낮은 수준의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지원이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는 다른 구성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울진군이 현재 농업과 수산업 등 1차산업에 의존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농촌지역의 주요산업인 1차산업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명확한 고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커뮤니티 자원에 비해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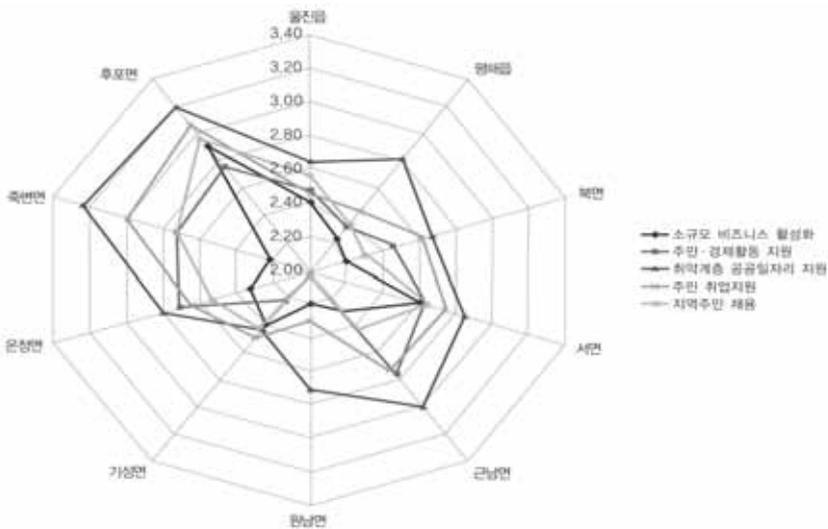
〈표 4-5〉 지역별 경제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지역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	주민 경제활동 지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지원	주민 취업지원	지역주민 채용	지역별 평균
울진읍	2.40	2.47	2.65	2.45	2.56	2.50
평해읍	2.24	2.33	2.83	2.43	2.35	2.43
북면	2.20	2.45	2.67	2.61	2.31	2.45
서면	2.59	2.63	2.85	2.75	2.65	2.69
근남면	2.31	2.77	3.00	2.73	2.44	2.65
원남면	2.20	2.05	2.70	2.30	2.05	2.26
기성면	2.39	2.22	2.43	2.48	2.43	2.39
온정면	2.32	2.71	2.80	2.65	2.54	2.60
죽변면	2.21	2.72	3.24	3.00	2.72	2.78
후포면	2.90	2.74	3.19	3.06	2.97	2.97
요소별 평균	2.38	2.51	2.84	2.65	2.50	2.57

지역별 경제적 자원의 분포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는 후포면에서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원남면과 죽변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 경제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근남면, 죽변면, 온정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성면과 원남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주민 취업 지원에 있어서는 후포면과 죽변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원남면, 평해읍, 울진읍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주민의 채용에 대해서는 후포면과 죽변면이 주민 취업지원과 유사하게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남면, 북면, 평해읍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주민 채용이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적 자원은 울진군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후포면, 죽변면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특히 원남면과 기성면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후포면과 죽변면의 경우 항구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주민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림 4-14〉 지역별 경제적 자원 분석결과



5) 정치적 자원

울진군의 정치적 자원 수준은 평균 3.02로 3점을 기준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참여의 적극성, 주민조직 활성화, 규칙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주민조직 활동경험이나 의사결정 접근 용이성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정치적 자원과 관련하여 울진군 주민들은 정치에 대한 참여의 의지와 준법의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나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잘 구비되어 있지 못하여 의사결정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지역별 정치적 자원의 요소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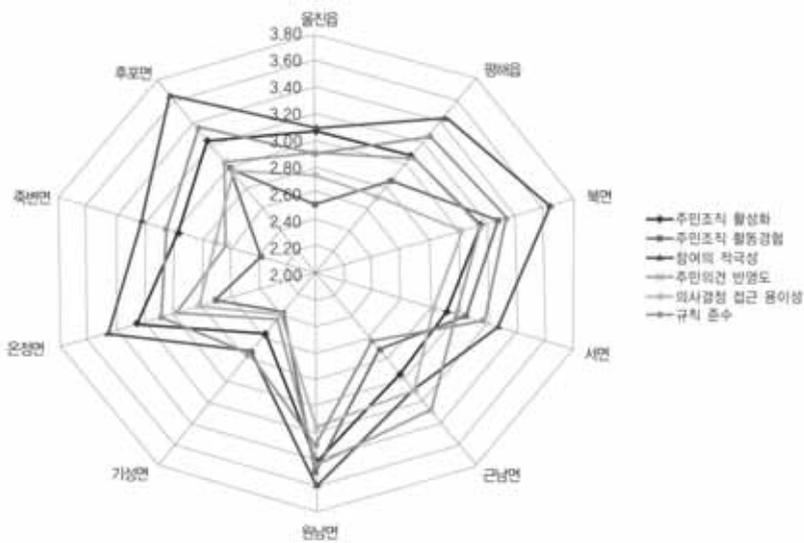
지역	주민조직 활성화	주민조직 활동 경험	참여의 적극성	주민의견 반영도	의사결정 접근 용이성	규칙 준수	지역별 평균
울진읍	3.07	2.52	3.09	2.93	2.75	2.90	2.88
평해읍	3.09	2.85	3.46	3.07	2.70	3.26	3.07
북면	3.14	3.27	3.63	3.17	3.02	3.33	3.26
서면	2.93	3.05	3.29	2.98	2.83	3.17	3.04
근남면	2.96	2.72	3.08	3.29	3.12	2.64	2.97
원남면	3.45	3.50	3.60	3.44	3.17	3.30	3.41
기성면	2.57	2.35	2.74	2.43	2.39	2.74	2.54
온정면	3.24	2.69	3.45	2.98	2.80	3.10	3.04
죽변면	2.96	2.40	3.23	2.64	2.71	3.04	2.83
후포면	3.23	2.97	3.67	3.03	2.94	3.35	3.20
요소별 평균	3.06	2.83	3.32	3.00	2.84	3.08	3.02

지역별 정치적 자원의 분포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정치적 자원을 종합해보면, 원남면, 북면, 후포면 등은 정치적 자원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성면, 죽변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조직 활성화는 원남면, 후포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기성면, 서면, 근남면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주민조직의 활동경험은 원남면과 북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기성면, 죽변면, 울진읍 등에서는 주민조직의 활동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의 적극성은 기성면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견 반영도는 원남면과 근남면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성면과 죽변면 등에서는 주민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사결정의 접근 용이성은 원남면, 근남면, 북면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외의 지역에서는 의사결정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칙준수는 북면, 원남면, 평해읍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근남면과 기성면, 그리고 울진읍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지역별 정치적 자원의 비교



6) 분석결과의 종합

울진군의 지역 커뮤니티 자산의 결과를 종합하면,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각 읍면별로 커뮤니티 자산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경우 지역에 존재하는 기반시설과 인적 구성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 자원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인프라와 무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지역의 커뮤니티 자산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간 발전의 차이,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울진군의 지역 커뮤니티 자원의 분포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지역 커뮤니티 자원의 규모는 평균 2.91로 3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물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 그리고 정치적 자원은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은 다른 요소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의 중심이 되는 30대~40대의 인구가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인적 자원이 약해지고 1차 산업 중심의 지역경제구조로 인해 전체적인 경제적 자원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 높은 것은 울진군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의 분포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며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이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시설의 확충 등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7〉 지역별 커뮤니티 자산 분석의 종합

지역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산	경제적 자산	정치적 자산	지역별 평균
울진읍	3.23	2.68	2.89	2.50	2.88	2.84
평해읍	3.04	2.92	2.96	2.43	3.07	2.88
북면	2.82	2.77	3.12	2.45	3.26	2.88
서면	3.23	2.97	3.04	2.69	3.04	2.99
근남면	3.28	2.90	2.97	2.65	2.97	2.95
원남면	3.23	2.95	3.33	2.26	3.41	3.04
기성면	2.89	2.40	2.66	2.39	2.54	2.58
운정면	3.34	2.71	3.06	2.60	3.04	2.95
죽변면	3.09	2.67	2.98	2.78	2.83	2.87
후포면	3.18	2.93	3.19	2.97	3.20	3.09
요소별 평균	3.13	2.79	3.02	2.57	3.02	2.91

3. 커뮤니티 자원의 읍면별 차이 분석

지역간 커뮤니티 자원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자원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자원(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 정치적 자원)별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각 세부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읍면간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적으로 물적 자원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일반자연 환경, 개발가능한 자연환경에 있어서는 읍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공동시설과 역사적·문화적 자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지역마다 유사한 규모로 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역사적·문화적 자산에 있어서는 모든 지역에서 자산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읍면간 물적 자원 차이 분석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기반시설	Between Groups	27.796	9	3.088	3.374	.001**
	Within Groups	340.550	372	.915		
	Total	368.346	381			
주민공동시설	Between Groups	5.631	9	.626	.634	.768
	Within Groups	364.369	369	.987		
	Total	370.000	378			
일반자연환경	Between Groups	90.192	9	10.021	9.760	.000**
	Within Groups	377.861	368	1.027		
	Total	468.053	377			
개발 가능한 자연환경	Between Groups	26.535	9	2.948	2.269	.018*
	Within Groups	478.145	368	1.299		
	Total	504.680	377			
역사적·문화적 자원	Between Groups	10.732	9	1.192	1.097	.364
	Within Groups	395.803	364	1.087		
	Total	406.535	373			

주1) * $p < 0.05$, ** $p < 0.01$

주2) 결측값 제외하여 분석함

한편 인적 자원에 있어서의 읍면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지표 중에서 지역출신의 유명인사, 지역 리더의 리더십, 기술인력의 수준은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과 주민건강에 있어서는 지역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읍면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건강은 가치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인 수준의 건강이 확보되도록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읍면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읍면간 인적 자원 차이 분석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지역출신 유명인사	Between Groups	29,680	9	3,298	4,264	.000**
	Within Groups	286,159	370	.773		
	Total	315,839	379			
지역 리더의 리더십	Between Groups	17,000	9	1,889	2,232	.020*
	Within Groups	311,476	368	.846		
	Total	328,476	377			
교육수준	Between Groups	7,907	9	.879	1,024	.420
	Within Groups	313,912	366	.858		
	Total	321,819	375			
기술인력 수준	Between Groups	17,000	9	1,889	2,232	.020*
	Within Groups	311,476	368	.846		
	Total	328,476	377			
주민건강	Between Groups	9,553	9	1,061	1,519	.139
	Within Groups	257,835	369	.699		
	Total	267,388	378			

주1) * $p < 0.05$, ** $p < 0.01$

주2) 결측값 제외하여 분석함

사회적 자원의 읍면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 자부심만이 읍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의 주민유대감, 주민간 협력, 거주 만족도 등은 통계적으로 읍면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자부심에 있어 읍면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읍면이 지역 자부심의 중요한 공간적 범위가 된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외의 다른 사회적 자본들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10〉 읍면간 사회적 자원 차이 분석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주민 유대감	Between Groups	7.612	9	.846	1.038	.409
	Within Groups	303,814	373	.815		
	Total	311,426	382			
주민간 협력	Between Groups	10,890	9	1,210	1.469	.158
	Within Groups	304,742	370	.824		
	Total	315,632	379			
주민간 교류	Between Groups	14,242	9	1,582	1.882	.053
	Within Groups	309,461	368	.841		
	Total	323,704	377			
지역 자부심	Between Groups	24,436	9	2,715	3.169	.001**
	Within Groups	314,391	367	.857		
	Total	338,828	376			
거주 만족도	Between Groups	14,242	9	1,582	1.882	.053
	Within Groups	309,461	368	.841		
	Total	323,704	377			
자원봉사 활성화	Between Groups	10,890	9	1,210	1.469	.158
	Within Groups	304,742	370	.824		
	Total	315,632	379			

주1) * $p < 0.05$, ** $p < 0.01$

주2) 결측값 제외하여 분석함

경제적 자원에 대해서는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와 주민 경제활동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읍면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의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주민 취업지원, 지역주민 채용 등에 있어서는 읍면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 읍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읍면 단위의 커뮤니티 자원은 지역간에 상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와 주민 경제활동 지원에서 읍면간 차이가 유발되는 것은 커뮤니티 내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업들이 주로 읍면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1〉 읍면간 경제적 자원 차이 분석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소규모 비즈니스 활성화	Between Groups	13,782	9	1,531	1,910	.049*
	Within Groups	297,452	371	.802		
	Total	311,234	380			
주민 경제활동 지원	Between Groups	13,782	9	1,531	1,910	.049*
	Within Groups	297,452	371	.802		
	Total	311,234	380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Between Groups	15,113	9	1,679	1,848	.059
	Within Groups	337,123	371	.909		
	Total	352,236	380			
주민 취업지원	Between Groups	14,357	9	1,595	1,807	.066
	Within Groups	326,640	370	.883		
	Total	340,997	379			
지역주민 채용	Between Groups	14,357	9	1,595	1,807	.066
	Within Groups	326,640	370	.883		
	Total	340,997	379			

주1) * $p < 0.05$, ** $p < 0.01$

주2) 결측값 제외하여 분석함

마지막으로 정치적 자원에 대한 분석에서는 주민조직 활동 경험과 참여의 적극성 그리고 주민의견 반영도와 규칙준수에 있어서 읍면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민조직 활성화와 의사결정 접근 용이성은 읍면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2〉 읍면간 정치적 자원 차이 분석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주민 조직 활성화	Between Groups	11,934	9	1,326	1,584	.118
	Within Groups	312,301	373	.837		
	Total	324,235	382			
주민조직 활동 경험	Between Groups	17,480	9	1,942	2,341	.014*
	Within Groups	307,833	371	.830		
	Total	325,312	380			
참여의 적극성	Between Groups	18,184	9	2,020	2,352	.014*
	Within Groups	312,749	364	.859		
	Total	330,933	373			
주민 의견 반영도	Between Groups	17,480	9	1,942	2,341	.014*
	Within Groups	307,833	371	.830		
	Total	325,312	380			
의사결정 접근 용이성	Between Groups	12,055	9	1,339	1,551	.129
	Within Groups	317,038	367	.864		
	Total	329,093	376			
규칙 준수	Between Groups	17,480	9	1,942	2,341	.014*
	Within Groups	307,833	371	.830		
	Total	325,312	380			

주1) * $p < 0.05$, ** $p < 0.01$

주2) 결측값 제외하여 분석함

분산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물질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 정치적 자원은 유의수준 0.05에서 읍면간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면별로 산재되어있는 물질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 그리고 정치적 자원의 분포가 지역별로 다르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은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지 않았다.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각 자원의 평균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읍면간 평균차이는 물질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 그리고 정치적 자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인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은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4-13〉 읍면간 커뮤니티 자원 차이 분석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물질적 자원	Between Groups	11,042	9	1,227	2,174	.023*
	Within Groups	213,345	378	.564		
	Total	224,386	387			
인적 자원	Between Groups	7,591	9	.843	1,635	.103
	Within Groups	194,996	378	.516		
	Total	202,587	387			
사회적 자원	Between Groups	10,975	9	1,219	1,910	.049*
	Within Groups	240,086	376	.639		
	Total	251,061	385			
경제적 자원	Between Groups	8,356	9	.928	1,636	.103
	Within Groups	214,503	378	.567		
	Total	222,859	387			
정치적 자원	Between Groups	13,409	9	1,490	3,006	.002**
	Within Groups	187,371	378	.496		
	Total	200,780	387			

주: * $p < 0.05$, ** $p < 0.01$

분석결과에 따르면 같은 자치단체 내의 읍면이라는 소규모 지역마다 지역에 존재하는 커뮤니티 자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읍면간 차이를 갖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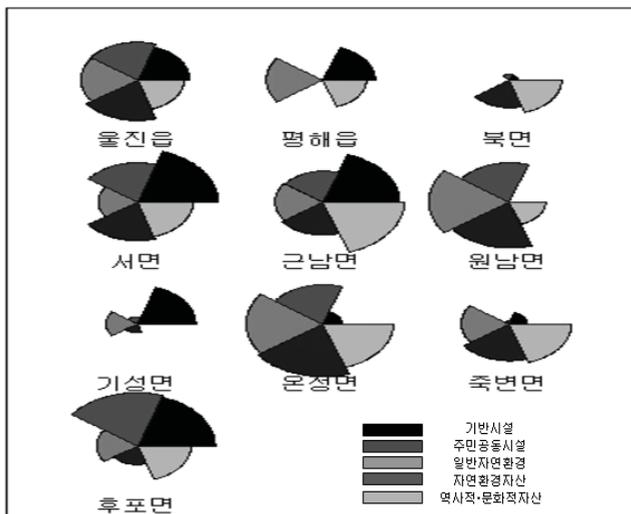
커뮤니티 자원들은 지역주민간의 상대적 자부심과 거주지역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의 경우 단시간의 집중적인 재원투자로 형성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점에 기인하면 이러한 자원의 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역량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제3절 지역별 자원유형의 맵핑

1. 물적 자원

울진군의 10개 읍면별로 구분하여 물적 자원을 맵핑하면 아래의 <그림 4-16>과 같다. 물적 자원의 5개 요소별로 읍면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각 요소별로 10개 읍면 중에서 높은 수준의 순서에 따라 개별 요소별 그림(호)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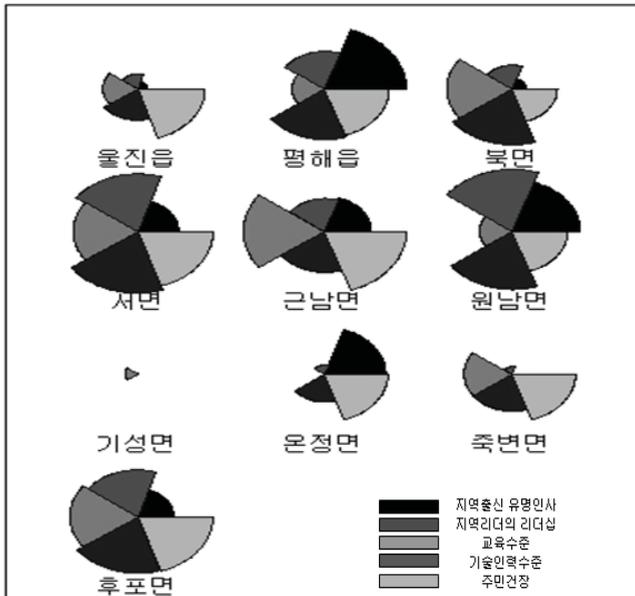
<그림 4-16> 지역별 물적 자원 다이어그램



2. 인적 자원

울진군의 10개 읍면별로 구분하여 인적 자원을 맵핑하면 아래의 <그림 4-17>과 같다. 인적 자원의 5개 요소별로 읍면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각 요소별로 10개 읍면 중에서 높은 수준의 순서에 따라 개별 요소별 그림(호)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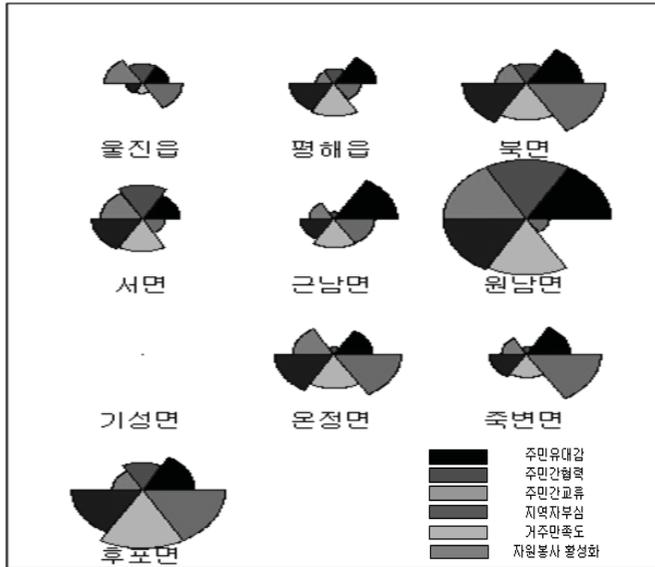
<그림 4-17> 지역별 인적 자원 다이어그램



3. 사회적 자원

울진군의 10개 읍면별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원을 맵핑하면 아래의 <그림 4-18>과 같다. 사회적 자원의 6개 요소별로 읍면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각 요소별로 10개 읍면 중에서 높은 수준의 순서에 따라 개별 요소별 그림(호)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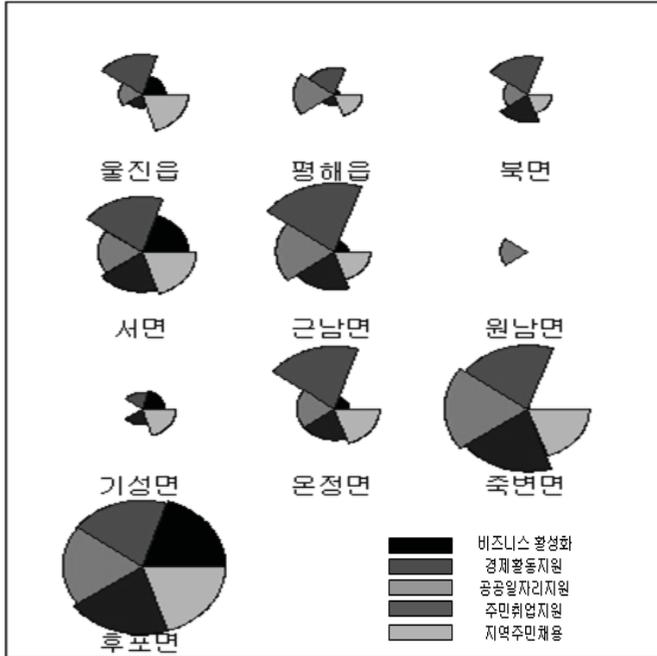
〈그림 4-18〉 지역별 사회적 자원 다이어그램



4. 경제적 자원

울진군의 10개 읍면별로 구분하여 경제적 자원을 맵핑하면 아래의 <그림 4-19>와 같다. 경제적 자원의 5개 요소별로 읍면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각 요소별로 10개 읍면 중에서 높은 수준의 순서에 따라 개별 요소별 그림(호)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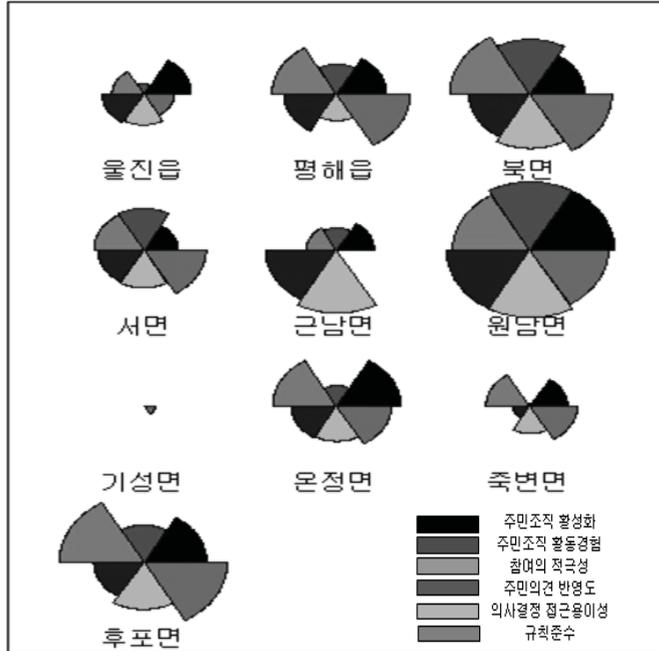
〈그림 4-19〉 지역별 경제적 자원 다이어그램



5. 정치적 자원

울진군의 10개 읍면별로 구분하여 정치적 자원을 맵핑하면 아래의 <그림 4-20>과 같다. 정치적 자원의 6개 요소별로 읍면별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각 요소별로 10개 읍면 중에서 높은 수준의 순서에 따라 개별 요소별 그림(호)의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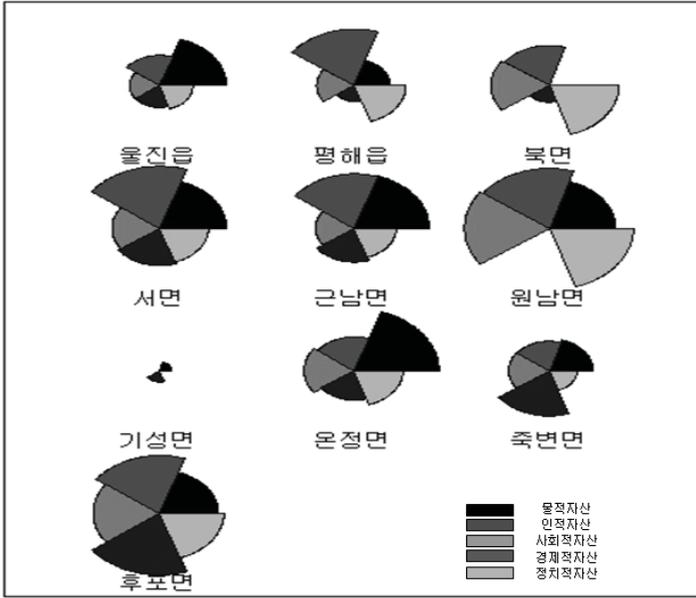
〈그림 4-20〉 지역별 정치적 자원 다이어그램



6. 지역별 자원의 종합 비교

지역별 자산의 분포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4-21>과 같다. 지역 커뮤니티 자산은 원남면과 후포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커뮤니티 자산의 분포 상태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포면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 자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남면의 경우 전체적인 커뮤니티 자산 수준은 비슷하지만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 그리고 정치적 자원만 높은 수준을 보일 뿐 경제적 자원은 아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각 지역마다 지역자산의 분포도와 자산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산분포의 차이가 지역 간의 발전 정도의 차이와 역량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4-21〉 지역 커뮤니티 자원 비교분석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기대효과

1. 연구결과의 요약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보다 독립적이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내생적인 측면보다는 주로 외생적인 발전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지방행정의 연구지평을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 하에 제2장에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종합·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개념적 논의에서 출발하여 이론적 접근방법을 5개 접근방법(지역개발학적 접근, 지리학적 접근, 경영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과 도시계획학적 접근)으로 구분한 후,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분석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원 유형화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를 분석한 후, 본 연구에 활용할 자원의 유형화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사할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지역(울진군의 읍면)을 중심으로 5개 자원 분야별로 지역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사회적 자원,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의 분포 정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경우 지역에 존재하는 기반시설과 인적 구성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경제적 자원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에 따라 지역간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프라와 무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에서 지역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은 지역의 커뮤니티 자산이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간 발전의 차이,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의 커뮤니티 발전은 주로 하향식 방식의 발전계획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상향식 방식의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문제를 커뮤니티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문제점과 그 이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의 기대효과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로 다르게 분포하는 커뮤니티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수 있다. 커뮤니티 자원의 파악 및 측정을 통하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자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커뮤니티의

자원에 대한 연구의 확대 그리고 자원의 파악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불황, 중앙과 지방간 자원배분 갈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사회복지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자원에 기초한 내생적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커뮤니티 자원의 활용 방안 및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커뮤니티 자원 측정을 위한 방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 자원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커뮤니티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종합적인 지역발전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으로 지역발전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연구분야의 발굴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선행연구가 상당히 일천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연구분야의 발굴 및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원과 연계된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실제 연구수행 간의 격차 해소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제언

1. 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자원의 활용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 관내 읍면들도 상당히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시

군 차원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시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읍면간의 자원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단체 관내 읍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과 동시에 읍면 간의 자원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생적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단위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읍면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각종 결정에 관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군 단위의 읍면에는 노인층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각종 직능단체 대표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확대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렴된 의견들을 읍면의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읍면 단위에서는 이장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며, 주민과 읍면 간의 정책중개자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읍면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읍면 단위에서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읍면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울진군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한수원이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협약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읍면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읍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읍면에 소개하고 있는 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읍면의 잠재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읍면 단위에서의 통계데이터 생성 및 활용 강화

시군구 차원에서의 통계자료 확보를 한 차원 내려 읍면동 차원에서의 통계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실제로 시군구에서 읍면동 행정통계를 확보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종 인프라에 대한 통계가 생성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읍면동 통계에 기반하여 각종 시책이 추진됨으로써 증기기반의 시책 추진을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읍면동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향후, 읍면자치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도 읍면단위에서의 통계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읍면자치가 단기간 내에 실시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읍면자치의 도입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의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도 읍면단위에서의 통계의 생성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5. 기초자치단체 지역별 자원맵핑 시스템 구축

기초자치단체의 읍면별 자원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한 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읍면에 따라서도 자원이 특성이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읍면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맵핑하여 지역단위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자원맵핑은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독거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을 맵핑하거나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지역·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관련 정보의 제공,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맵핑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 지역자원을 유형화하여 맵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맵핑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하여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맵핑은 더욱 용이해지고 있으며, 시각화 수준도 더욱 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보다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형, 박종화. (2010).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14(3), 97-116.
- 기영화 외. (2013). 성미산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 페러다임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47(1): 295-320.
- 김명진. (2012). 균형성과표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과지표 개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호.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 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275-299.
- 김종수, 전은호, 홍성호, (2012). 공동체자산기반 접근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방향 모색, 도시행정학보, 25(2): 71-91.
- 김현주, 박재룡, 김범식, 박용규, 송영필, 이상권. (1997). 세계도시경쟁력 비교. 삼성경제연구소.
- 김현호, 한표환. (2004). 지역발전을 위한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류재익. (2004). 공간자산매핑을 이용한 지역사회 능력배양의 모델링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7(4): 98-108.
- 박유리, 고준환, 안형준, 서창완, 김근한. (2009). 커뮤니티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웹 기반 PPGIS 프로토타입 개발. 한국 GIS 학회지, 17(2): 159-169.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 서재호, 김혜정, 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7.
- 서재호.. (2012). 국내 공동체(커뮤니티) 연구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과 행정학에 대한 함의: 연구분야, 방법, 목적 및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155-182.
- 유재윤, 조판기. (1996). 도시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승중, 기영화, 김윤지, 김남숙. (2013). 커뮤니티 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 연구. 한국행정학보, 47(2): 313-337.

- 이연숙, 정은정, 김주석. (2010). 주민워크숍 효율성 증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이미지맵 활용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이왕건, 박태선, 박정은, 류태희, 이유리. (2011).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임병호, 이재우. (2008). 전문가 설문에 기초한 도시경쟁력의 모의적 평가. 국토계획, 43(3): 55-69.
- 임순정, 박정은, 이효원. (2014).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자산 측정도구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30(1): 169 ~ 180.
- 최유진, 홍준현. (2007). 도시경쟁력 관점에서의 통합시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1(1): 65-93.
- 최현선. (2012). 커뮤니티 개발과정에서의 자산지도화기법 활용사례 연구. 국토연구. 75: 53-67.
- 한상일. (2010). 사회적 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 창조와 혁신. 3(1).
- 호소우치 노부타카 외. (2008). 우리 모두 주인공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정일 옮김. 이매진.
- Anderson, M., Meaton, J. & Potter, C. (1994). Public participation: an approach using aerial photographs at Ashford, Kent. *Town planning review*, 65(1), 41-58.
- Boyer, R. (1985). *Places rated almanac: Your guide to finding the best places to live in America*. Prentice Hall.
- Christakopoulou, S., Dawson, J. & A. Gari. (2001).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3): 321-351.
- City of Calgary. (2005). *Indices of Community Well-Being for Calgary Community Districts*.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Community Strategies Business Unit, Policy and Planning Division. Calgary, Alberta.
- Cox, D., Frere, M., West, S. & Wiseman, J. (2010). Developing and using local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5(1): 71-88.
- Cuthill, M. (2002). Coolangatta: A portrait of community well-being. *Urban Policy and Research*, 20(2): 187-203.

- Davies, W. K. D. & Herbert, D. T. (1993). *Communities within cities: An urban social geography*. London: Belhaven Press.
- DeFilips, J. & Saegaet, S. (2008). *The Community Development Reader*.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Elliott, C.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9). *Locating the energy for change: An introduction to appreciative inquiry*. Winnipeg: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Ferguson, R. F. and Dickens, W. T. (Eds.) (1999). *Urban Problems and community developm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Green, G. P. and Haines, A. (2012). *Asset Building & Community Development*. Sage Publications.
- Hay, D. I. (1993). *Well-Being: A Conceptual Framework and Three Literature Reviews*. Social Planning and Research Council of B.C. (SPARC). Vancouver, British Columbia.
-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IDeA, (2010) *A glass half-full: how an asset approach can improve community health and well-being*.
- Kretzmann, J. & McKnight, J.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Chicago: ACTA Publications.
- Kretzmann, J. & McKnight, J. (1996). *Assets-based community development*. *National Civic Review*, 85(4): 23-29.
- Liu, B. C. (1978). *Variations in social quality of life indicators in medium metropolitan area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37(3): 241-260.
- MacQueen, K. M. McLellan, E., Metzger, D. S., Kegeles, S., Strauss, R. P., Scotti, R, Blanchard, L. & Trotter, R. T. (2001). *What is community? An evidence-based definition for participatory public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1(12): 1929-1938.
- Malecki, E. J. (2002). *Hard and soft networks for urban competitiveness*. *Urban Studies*, 39(5-6): 929-945.

- Mathie, A. & Cunningham, G. (2003). From Clients to Citizens: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as a Strategy for Community-Driven Development, The Coady International Institute.
- McMillan, D. W. & Chavis, 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Murphy, B. L. & Kuhn, R. G. (2006). Community: Defining the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NWMO SR-2006-02. Toronto.
- Peredo, A. M. & Chrisman, J. J. (2006). Toward a theory of community-based enterpris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1(2): 309-328.
- Pronshanky, H. M. et al. (1983). Place 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 57-83.
- Ramsey, D. & Smit, B. (2002). Rural community well-being: models and application to changes in the tobacco-belt in Ontario, Canada. *Geoforum*, 33(3): 367-384.
- Ribova, L. (2000). Individual and Community well-being. The Artic. Stefansson Artic Institute.
- Russell, C. & Smeaton, T. (2009). From Needs to Assets: Charting a Sustainable Path Towards Development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Conference.
- Selsky, J. W. & Smith, A. E. (1994). Community entrepreneurship: A framework for social change leadership. *The Leadership Quarterly*, 5(3): 277-296.
- Sirgy, M. J., Widgery, R. N., Lee, D. J. & Grace, B. Y. (2010). Developing a measure of community well-being based on perceptions of impact in various life domai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6(2): 295-311.
- Smith, N. (1973). Of yuppies and housing: gentrification, social restructuring, and the urban dream.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5(2): 151-172.
- The Scottish Development Centre for Mental Health, in association with Scottish Council Foundation and OPM. (2003). Building Community Well-Being: An exploration of themes and issues – Project Summary Report. The Scottish Executive. Edinburgh, Scotland.
- Webster, D. & Muller, L. (2000). Urban competitiveness assessment in developing country

urban regions: the road forward. Urban Group, INFUD.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July, 17: 1-47.

■ ■ Abstract

A Study on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Since implementation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local governments experience various changes and they spare no efforts to pursue development which is more independent and tailored to unique regional condition. Although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in practice has generally been led by external development rather than by endogenous improvement, now is the time for local governments to seek new solutions by themselves due to rapid transformation in external environment.

Given these circumstances as a backgroun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expand the horizon of research on local administration through conducting an exploratory study in connection with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to provide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endogenous development when setting their local development plan in diverse areas.

Under these purposes, we carried out systemic organization and analysis on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community resources in Chapter 2. Beginning at conceptual discussions first, we divided theoretical approaches thereon into five branches (i.e., approaches from the aspects of regional development, geography, business administration, sociology and urban planning) and made systematic consideration as to main details of such branches. Then, we suggested frame of analysis based on such discussions and analyses.

In Chapter 3, we examined existing studies on resource categorization, suggested resource categorization to be utilized in the present study and described details to be investigated based thereon.

In Chapter 4, we carried out empirical analysis as to regional differences of five resource areas, centering on case region (eups and myeons of Uljin-gun) among local

governm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ing in distribution of material, huma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esources depending on regions. Generally, regional difference in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may occur depending on infrastructure and composition of population of the region and regional gap in economic resources may also rise depending on specialized industry of the region. However, existence of social and political resources, two elements which are irrelevant to regional infrastructure, suggests that community asset of the region may be a critical factor which may pose effect on many variables such as differences in regional development, political influence, etc. within local government. For self-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region, therefore, development plan should be laid by considering what asset each region has to the fullest extent.

So far, community development has been made by mainly focusing on top-down growth plans but it has to change its direction to bottom-up growth so that sustainability of regional development may be guaranteed. For regional development, communities must be revitalized, helping local governments solve regional issues by making the most of community resources they own. Accordingly, a plan should be drawn up on how we can conduct better fruitful studies by reviewing the state and the reason why we have failed to carry out systematic researches on community resources under the current condition. Finally, mo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studies on community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henceforward.

【부록1】 울진군 읍면의 자원 발굴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울진군청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울진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진군의 발전은 울진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본 설문은 울진군의 읍면에 소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파악하여 울진군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귀하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e-mail : hypark@krila.re.kr

FAX: 02-3488-7364

전 화: 02-3488-7337

I.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읍면의 물적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항목 중에서 귀하의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설문내용	←아니다 보통 그렇다→				
		1	2	3	4	5
1-1	우리 지역(읍면)에는 기반시설(주택, 도로, 공원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우리 지역(읍면)에는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자치센터,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우리 지역(읍면)의 자연환경(공기, 물, 소음)이 살기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4	우리 지역(읍면)에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환경자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	우리 지역(읍면)에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역사적·문화적 자산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I.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읍면의 인적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항목 중에서 귀하의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설문내용	←아니다 보통 그렇다→				
		1	2	3	4	5
2-1	우리 지역(읍면)에는 읍면에서 배출한 유명인사가 많이 있습니까?					
2-2	우리 지역(읍면)의 리더(유지)는 읍면을 잘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2-3	우리 지역(읍면)은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	우리 지역(읍면)에는 기술(재주)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5	우리 지역(읍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Ⅲ.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읍면의 사회적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항목 중에서 귀하의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설문내용	←아니다 보통 그렇다→				
		1	2	3	4	5
3-1	우리 지역(읍면) 주민들 간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습니까?					
3-2	내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우리 지역(읍면) 주민들이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3-3	우리 지역(읍면)에서는 주민들 간에 모임 등 교류가 많습니까?					
3-4	우리 지역(읍면)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니까?					
3-5	우리 지역(읍면)에 사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3-6	우리 지역(읍면)에는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Ⅳ.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읍면의 경제적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항목 중에서 귀하의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설문내용	←아니다 보통 그렇다→				
		1	2	3	4	5
4-1	우리 지역(읍면)에는 소규모 비즈니스(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2	우리 지역(읍면)에는 주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과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3	우리 지역(읍면)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4	우리 지역(읍면)에는 주민의 취업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5	우리 지역(읍면)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는 지역(읍면) 주민을 충분히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V.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읍면의 정치적자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 각 항목 중에서 귀하의 의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문항	설문내용	←아니다 보통 그렇다→				
		1	2	3	4	5
5-1	우리 지역(읍면)의 주민조직(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2	우리 지역(읍면)의 주민조직(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자원봉사단체 등)에 참여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까?					
5-3	우리 지역(읍면)의 일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5-4	지역(읍면)주민의 의견이 읍면의 사업이나 업무추진에 잘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5	지역(읍면)의 주민과 주민조직은 읍면의 의사결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6	우리 지역(읍면)의 주민들은 새로운 생활규칙이 정해지면 믿고 따르는 편입니까?					

VI. 다음은 통계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귀하가 해당되는 번호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현거주지 거주기간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1년 이상
4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졸업 이상	
5	가계소득 (월 평균)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6	직업	① 농·축산업	② 수산업	③ 자영업	④ 서비스업	⑤ 전문직
		⑥ 회사원		⑦ 전업주부	⑧ 무직	⑨ 기타()
7	거주지	① 울진읍	② 평해읍	③ 북면	④ 서면	⑤ 근남면
		⑥ 원남면	⑦ 기성면	⑧ 온정면	⑨ 죽변면	⑩ 후포면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커뮤니티 자원에 관한 연구

발행일 :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 이 승 종

발행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Tel. 02)3488-7300

판매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http://www.gpcbooks.co.kr>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978-89-7865-399-2